

| 국어 2-2 |

# 정답과 해설

## 공통 개념 기본서

1 문학	02
2 문법	16
3 읽기	21
4 듣기·말하기/쓰기	25

# 1 문학

## 01 시의 화자

● **핵심 체크** p.008

1 화자 2 어조 3 ○ 4 X 5 X 6 X

4 화자의 성격이나 태도는 화자가 시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어, 시적 상황,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반응, 어조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차근차근 개념 체크** p.009

01 ① 말하는 ② 분위기 ③ 주제 02 물고기 03 ② 04 ③

03 나. 물고기 보호에 소홀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르. '하지 마세요', '비린내라뇨!', '언어폭력이에요'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의 화자는 담담하고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라 억울함과 항의를 드러내는 단호한 어조로 인간의 편견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화자가 주목한 것은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천천히 눌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소리가 이제는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가 되었으며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점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④ 기대하는 표현 효과가 무엇이느냐에 따라 화자를 달리 설정할 수 있다. 만약 순수하고 직설적인 감정 표현에서 오는 감동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어린이 이 화자가 더 적절할 것이다. 반면에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어른이 되어 뒤늦게 얻은 깨달음이나 지난날에 대한 회한, 성찰적인 그리움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것이다.

### (1) 딸기

● **내용 확인** p.010

1 ○ 2 X 3 ○

● **작품 마무리** p.010

농작물, 딸기, 사투리, 짐차, 딸기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011

01 ④ 02 ⑤ 03 ④ 04 ⑤ 05 ② 06 예시 답안 농작물인 '딸기'가 사투리를 섞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말하게 함으로써 농작물의 참된 가치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주제를 재미있고도 인상 깊게 드러내고 있다.

01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이 '하느님 손 농부 손 고루 났'다고 말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 표현일 뿐,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02 이 시의 화자는 '살결이 거칠다느니 / 단맛이 무르다느니 허진 말어유'라며 손님에게 자신의 품질에 대해 트집 잡지 말아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을 좀 더 귀하게 대해 달라는 요청이지, 자신의 안 좋은 품질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이 시는 농작물인 딸기를 사람처럼 말하게 하는 의인화를 사용하고, 사투리 말투를 더해 화자의 개성과 향토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독자가 시를 친근하고 신선하게 느끼게 한다.

04 ①에서는 화자인 딸기가 손님들에게 자기 몸값을 후하게 쳐 달라고 설득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나아가 그 속에는 자신과 같이 자연과 농부의 손길로 자란 농작물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으므로, ⑤가 적절하다.

05 이 시는 의인화된 딸기를 화자로 설정함으로써 재미있고 신선한 느낌을 주고, 그에 더해 딸기가 사투리를 구사하게 함으로써 재미와 신선함을 극대화하는 한편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반면 <보기>는 표준어를 구사하는 상인을 화자로 설정하여 이러한 효과들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농작물의 가치를 알아 달라는 시의 주제는 그대로 드러난다.

06 이 시의 주제는 농작물의 참된 가치를 알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시인은 딸기를 화자로 설정하고 사투리를 섞어 자신의 처지를 직접 말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주제를 인상 깊고 재미있게 드러내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화자인 딸기가 자신의 입장을 직접 말함을 제시함.	1점	3점
'농작물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램'이라는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남을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2)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 **내용 확인** p.012

1 ○ 2 ○ 3 ○

● **작품 마무리** p.012

붕어빵, 붕어빵, 나(화자), 열여섯

01 ⑤ 02 ③ 03 ② 04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 가장 따뜻했던 저녁 05 ④ 06 ⑤ 07 이 시의 화자는 친구가 가방에 넣어 준 봉어빵을 발견하고 따뜻함과 위로를 느끼고 있다.

- 01 '나'는 가방 속 봉어빵을 보고, 가방 지퍼를 닫아 주었던 선재가 몰래 넣어 둔 것임을 짐작하며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
- 02 이 시의 화자는 친구와의 일에서 따뜻함을 느꼈음을 말하고 있을 뿐, 학교생활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03 이 시에서 사물을 의인화한 표현은 찾을 수 없다.

**Clinic** 오답 강의

① '학교 앞 버스 정류장', '내 방'에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 ③ 친구와의 우정을 상징하는 '봉어빵'이라는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④, ⑤ '어두운 한기', '썰렁한 내 방'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촉각적 심상과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봉어가 다섯 마리', '가장 따뜻했던 저녁'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촉각적 심상이 대조를 이루며,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전달한다. '봉어빵 냄새'라는 후각적 심상으로 친구가 봉어빵을 준 시적 상황을 전달한다.

- 04 화자는 가방에서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든 봉어빵을 발견하고, 봉어빵에 담긴 선재의 따뜻한 마음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봉어빵을 발견한 뒤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 05 ㉠은 선재가 몰래 '나'의 가방에 넣어 준 봉어빵으로,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의미한다. '나'는 ㉠을 통해 온기와 위안을 느끼고 있지만, 이것이 '나'가 친구에게 기대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06 이 시의 화자를 열여섯 살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추억을 떠올리는 성인이라고 해석하면, 따뜻한 분위기와 함께 과거의 추억을 돌아보는 회상적이고 잔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07 이 시의 화자는 춥고 배고픈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썰렁한 집으로 돌아온 외롭고 쓸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가방에서 친구가 몰래 넣어 준 봉어빵을 발견하고 '내 열여섯 세상에 /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친구의 행동을 통해 따뜻함과 위로를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따뜻함, 위로를 받음 등을 씀.	1점	3점
친구의 행동이 이유임을 밝힘.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소설의 서술자**

● **핵심** 체크

1 서술자 2 시점 3 ○ 4 3인칭 5 1인칭

01 ① 서술자 ② 3인칭 ③ 자신 ④ 관찰자 ⑤ 3인칭 02 ⑤ 03 ④ 04 ㉠ 3인칭 관찰자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05 (1) ○ (2) ○ (3) X 06 ④ 07 ④ 08 약화

- 02 서술자는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여 줄지 결정하여 독자의 이해와 판단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서술자의 특성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나 주제가 드러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 03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여러 인물과 사건을 폭넓게 서술하며, 인물의 심리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 04 ㉠은 작품 밖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만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으므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은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가 주인공을 관찰해 전달하고 있으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 05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6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에 위치한 서술자가 주인공 '문기'의 내면 심리와 사건의 진행 과정을 모두 알고 전달하고 있다.
- 07 (가)의 '나'는 점순이가 감자를 건네는 행동에 담긴 호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놀리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어수룩함 때문에 점순이와 '나' 사이에 순박한 오해가 생기고, 이것이 작품을 전개하고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반면 (나)처럼 '나'가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차려 버리면, 오해에서 비롯되는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 08 제시된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점순이의 마음과 소년의 오해를 모두 알고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 경우 사건의 원인과 결과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원작에서처럼 어수룩한 '나'의 시선을 따라가며 느끼게 되는 순박한 웃음은 줄어들는다. 따라서 해학적 분위기는 약화된다.

(1) **축구공과 응원 봉**

핵심 포인트

- 01 1인칭 주인공, 바준 02 윤현재, 송미단
- 03 마음, 축구 04 실마리, 초등학교
- 05 바준, 축구

● **차근차근 내용** 체크

1 ⑤ 2 ④ 3 ⑤ 4 ⑤ 5 ⑤ 6 ⑤ 7 ⑤ 8 ③ 9 ④  
 10 전방 십자 인대 파열 11 ⑤ 12 ② 13 ③ 14 ⑤ 15 초등학교(때 축구를 하던) 운동장 16 ③ 17 응원 봉 18 ⑤  
 19 ⑤ 20 ㉠-㉡-㉢-㉣

- 1 '나'라는 서술자가 자신의 눈으로 본 주변 인물(윤현재, 송미단)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혹은 관찰자적 성격이 강한 주인공 시점)을 취한다.
- 2 송미단은 조용한 편이지만 만만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며, 수행 평가 주제를 정하는 일로 윤현재와 대립하는 등 주관이 뚜렷한 성격으로 묘사된다.
- 3 (다)에서 윤현재는 송미단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친구에게 송미단이 '소름 끼친다'고 험담을 한다.
- 4 윤현재는 사회적인 주제, 역사적인 배경, 가사의 의미 등 발표 자료로 확장하기 좋은 요소를 들어 수행 평가에 유리한 곡을 추천하고 있다. 반면 송미단은 바준의 노래를 계속 추천하고 있다.
- 5 '나'는 송미단의 침묵, 시선, 표정 등 겉으로 드러난 반응을 관찰한 뒤,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그 심리를 짐작하고 있다.
- 6 (사)에서 '나'는 축구부 아이들의 훈련 모습을 보지 않으려 애쓰고 구령에 발을 맞추지 않으려 한다. 이는 축구에 대한 미련과 상처가 남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지, 축구부의 훈련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 7 '나'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 그런 일을 한다고?"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즐겁고 음악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 8 송미단은 (아)의 끝부분에서 "너무 외로울 때 있잖아. 그때 음악을 들으면 텅 비었던 마음이 멋진 소리로 가득 차."라고 말하며 음악이 외로운 마음을 채워준다고 설명한다.
- 9 '나'는 송미단이 죽은 가수를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부상으로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상황과 비슷함을 느낀다. 즉, 소중한 대상을 잃었지만 그에 대한 감정은 남아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다.
- 11 축구공은 '나'가 초등학교 때 처음 산 것으로, 축구 선수라는 꿈을 가졌던 과거의 추억과 열정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 12 처음에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송미단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도 남에게 털어놓지 못한 마음속 깊은 이야기가 있음을 깨닫고 멍해진 상태이다.
- 13 처음에는 축구에 대한 미련과 상실감으로 주변에 무관심하고 송미단에게도 소극적으로 대했으나, 송미단이 비난받는 상황에 놓이자 그녀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쪽으로 변화를 보인다.
- 14 ㉠은 꿈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처럼 표현 되었지만, 실제로는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던 노래 가사이다. 이 노래 가사는 이후 '나'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로 작용하게 된다.
- 15 '나'는 축구를 하는 꿈을 꾸고 송미단으로부터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받은 뒤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던 운동장에 간다. 이

는 '나'가 비로소 자신의 속마음을 마주하고 성찰하려 함을 의미한다.

- 16 초등학교 운동장에 찾아간 '나'는 축구하는 아이들을 본다. 이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되어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 17 송미단은 '나'에게 노래 목록과 "응원한다!" 라는 메시지, 응원봉 사진을 보낸다. 여기에는 '나'를 응원하는 송미단의 마음이 담겨 있다.
- 18 '나'는 송미단이 만들어 준 목록에 자신의 곡을 더해 새로운 목록을 만든다. 이는 타인의 세계(음악)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세계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상징한다.
- 19 ㉠은 '나'가 송미단에게 공유하고 싶은 자신의 이야기이므로 ㉠~㉣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20 ㉣ 바준을 좋아하는 송미단을 이해하지 못하며, 송미단의 행동에 당황함. → ㉡ 좋아하는 대상을 잃은 송미단에게 동질감을 느낌. → ㉣ 윤현재에게 비난을 받는 송미단의 편이 되어 줌. → ㉤ 송미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함.

**작품 한눈에 보기** p.025

① 1인칭 주인공 ② 축구 ③ 속마음 ④ 응원

**차곡차곡 실력 체크** p.026~p.027

01 ㉣ 02 ㉡ 03 예시 답안 송미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선정하고 싶어 하는 반면, 윤현재는 발표 자료로 확장하기 좋은 요소를 들어 수행 평가에 유리한 주제의 곡을 고르고 있다. 04 ㉢ 05 ㉡ 06 ㉢ 07 예시 답안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의 좌절과 성장 과정을 '나'가 직접 말하여 독자가 인물의 감정 변화에 더욱 생생하게 공감하고 몰입하게 한다. 반면, 3인칭 시점으로 서술하면 인물의 성장을 보다 거리감 있게 바라보게 된다.

- 01 이 글은 '나'라는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심리와 주변 인물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 방식을 취한다.
- 02 (다)에서 '나'는 축구부의 훈련 모습을 보지 않으려 애쓰고, 구령에 맞춰지는 발걸음을 일부러 엇갈리게 걷는다. 이는 축구를 그만둔 것에 대한 상실감과 축구에 대한 미련을 애써 외면하려는 복합적인 심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3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송미단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선정하려 함을 씀.	2점	4점
	윤현재가 수행 평가에 유리한 주제의 곡을 고르려 함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4 축구 선수를 꿈꾸던 초등학교 시절을 ‘앞만 보고 달리던 삶’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나’가 그러한 삶에서 ‘멈추어 서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는 축구 선수를 꿈꾸며 살아가던 중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좌절하게 되었으나, 친구와의 연대와 우정을 통해 성장하였다.

05 전체 줄거리에서 (다)는 ‘나’가 송미단을 변호하며 윤현재에 맞서는 사건 뒤에 등장하므로, 이 노래 가사가 ‘나’가 윤현재에 맞서는 계기는 아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③, ④ (다)에서 들리는 노래 가사는 ‘너는 혼자야 아니야’, ‘너의 날은 어차피 올 테니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부상으로 좌절하여 무기력했던 ‘나’가 자신의 아픔과 직면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는 가사이다.

06 ‘나’는 “오늘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나의 이야기를 한 움큼만 꺼내 할 작정이다.”, “언젠가 나의 현란한 드리블 실력도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축구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축구에 대한 미련을 접고 새로운 관심사로 완전히 옮겨 갔음을 뜻한다고 이해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1인칭 서술의 효과를 알맞게 씀.	1점	3점
타인과의 공감을 통해 성장한다는 주제가 잘 드러남을 씀.	1점	
3인칭은 객관적 서술, 거리감 있는 전달이 효과적인 점과 대비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 사랑손님과 어머니

**핵심** **포인트**

p.029~p.034

- 01 여섯, 하숙
- 02 관심, 화
- 03 당황
- 04 포기
- 05 꽃, 재미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029~p.034

- 1 ④    2 ④    3 ①    4 ④    5 ④    6 ⑤    7 속마음    8 ④
- 9 ③    10 ⑤    11 ②    12 성이 나서(성이 났는지)    13 ③
- 14 ②    15 ②    16 ③    17 ①

- 1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되었다. 서술자를 제외한 등장인물들의 심리는 직접 제시가 아닌, 서술자 옥희가 행동과 대사를 관찰한 내용을 통해 간접 제시가 주로 나타난다.
- 2 ② 옥희는 작품 속에서 주인공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관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3 어머니는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가치관을 지녔기 때문에 외간 남자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꺼린 것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③ “요새 세상에 내외합니까”라는 외삼촌의 말에서 서구의 개방적 가치관이 조금씩 확산되는 시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4 작품 전체 맥락에서 외삼촌은 아버지를 집에 데려온 인물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외삼촌의 존재는 아버지가 행동을 조심하게 만드는 사회적 감시자의 느낌을 주기도 한다.
- 5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외간 남자가 과부의 안방에 들어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거나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따라서 아버지는 옥희의 제안에 당황하여 강하게 거절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 6 어린아이 서술자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이나 사회적 제약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서술자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며 감동과 재미를 느끼게 된다.
- 7 ㉠에는 아버지가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빠’라고 불러 보고 싶은 ‘나’의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8 옥희는 아버지가 진짜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진심을 말했지만 아버지가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를 떨며 단호하게 부정하자, 이를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오해하고 무서움과 서운함을 느껴 온 것이다.
- 9 아버지는 옥희의 순수한 말에 옥희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드러날까 당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0 ‘남자석’이라는 표현에서 성별에 따라 좌석이 구분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옥희가 아버지를 가리키자 어머니가 당황하며 입을 막는 모습 등에서 남녀가 서로 내외하고 엄격히 구분되던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다.
- 11 아버지는 옥희가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에 간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에 예배당에 찾아온 것이다.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모습이 이를 뒷받침한다.
- 12 ‘나’는 예배 시간에 앞만 바라보는 어머니와 역시 자신을 바라봐 주지 않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성이 나서’ 그런 것이라고 여긴다.
- 13 (차)에는 과부의 재혼을 금기시하고, 재혼한 여성을 ‘화냥년’이라 비하하며, 그 자녀에게까지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다. 여성의 경제 자립이 활발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14 ㉠은 어머니가 사랑 아버지에 보내는 답장이다. (차)에서 어머니가 옥희에게 한 말로 볼 때, ㉠은 아버지의 고백이나 마음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임을 추측할 수 있다.

- 15 풍금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아저씨에 대한 감정의 통로를 차단하고 사랑의 감정을 완전히 봉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 16 아저씨가 좋아하던 달걀을 더 이상 사지 않는 행동을 통해 어머니가 아저씨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했음이 드러난다.
- 17 '나'는 어머니의 슬픔이나 아저씨와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가 "어디가 아픈가 보다."라고 추측한다.

**작품 한눈에 보기** p.035

① 관찰자 ② 봉건적 ③ 관찰 ④ 심리 ⑤ 순수

**차곡차곡 실력 체크** p.036~p.037

01 ① 02 ④ 03 ③ 04 예시 답안 두 작품의 서술자는 모두 자신의 경험을 직접 전하는 1인칭 서술자로, 미성숙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인물의 말과 행동에 담긴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사건이 생생하고 때로는 해학적으로 전달되도록 한다. 05 ⑤ 06 ③ 07 ④ 08 예시 답안 어머니와 아저씨 사이의 애정을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순수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게 한다.

- 01 '나(박옥희)'는 (가)에서 자신을 '여섯 살 난 처녀'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식구로는 어머니와 외삼촌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02 이 글의 서술자는 어린아이인 '나'이다. 이 작품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어머니와 아저씨의 말과 행동을 전달함으로써 독자가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짐작하게 하고 애뜻함과 흥미를 느끼게 한다.
- 03 (다)에서 아저씨가 외삼촌 앞에서는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짐작하게 그림책이나 보여 주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외삼촌에게 들리게 될까 봐 조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04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옥희와 <동백꽃>의 '나'는 모두 어린아이 같거나 순박하고 어수룩한 성격의 1인칭 서술자이다. 이들은 사건 속 인물의 감정이나 상황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한다. 그래서 독자는 서술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의미를 스스로 짐작하게 되고, 사건은 더 생생하고 흥미롭게 전달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두 작품 모두 1인칭 서술자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공통점을 씀.	2점	3점
사건이 생생하게 또는 해학적으로 전달된다는 효과를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5 이 글은 인물의 감정을 설명적으로 직접 제시하기보다, 옥희의 시선을 통해 어머니와 아저씨의 말과 행동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따라서 독자는 인물들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스스로 짐작하게 된다.
- 06 ㉠에서 옥희는 아저씨가 당황한 표정을 짓는 까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성이 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에서도 옥희는 어머니와 아저씨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어색해하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모두가 왜 성이 났는지 궁금해한다. 이처럼 서술자인 옥희가 어른들의 미묘한 감정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그 이면의 진실을 추론하게 만든다.
- 07 또 다른 등장인물인 '어머니'가 서술자가 된다면 어머니의 시각에서 사건을 전달하므로 어린아이 서술자의 한계나 그로 인해 형성되는 분위기는 사라지게 된다. 한편 어머니의 상황과 심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나, 아저씨의 속마음은 여전히 어머니가 관찰한 내용을 통해서만 전달되므로 아저씨의 속마음을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어른들 사이의 애정이라는 주제를 언급함.	1점	3점
순수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는 점을 제시함.	2점	
표현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3) 기차가 달려간 곳에는

**핵심 포인트** p.039~p.044

01 주인공, 교실 02 아빠, 할머니  
03 1 04 응원, 생라면, 희망

**차근차근 내용 체크** p.039~p.044

1 ⑤ 2 ④ 3 ④ 4 ④ 5 ④ 6 ③ 7 ② 8 ② 9 ①  
10 ④ 11 ⑤ 12 ① 13 ⑤ 14 ① 15 희망 16 ④  
17 ④ 18 가족은 삶을 버티게 하는 희망이다.

- 1 이 소설은 작품 안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2 (가)는 발단이다. 아직 어떠한 사건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반전이나 계기가 암시되기는 어렵다.

**Clinic 오답 강의**

(가)는 발단 부분으로, 교실에서 라면을 부쉬 먹는 '나'의 행동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앞으로 '나'가 서울행 기차를 탔던 사건이 제시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3 '나'는 한 살 어린 사촌 동생 성호의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싫어서 고모네 집에 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 4 제시된 부분에서 고모는 '나'가 상을 받은 것을 축하해 주었을 뿐, 고모가 가식적으로 행동한다거나 '나'가 그런 고모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5 연서는 성호가 칭찬받는 상황에서 "우리 오빠야도 저번에 태권도 대회에서 1등 했다."라고 말하며 오빠의 잘한 일을 함께 내세우고 있다. 이는 사촌을 깎아내리기보다 오빠에게도 잘하는 점이 있음을 드러내는 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6 연서는 고모의 아기를 보고 엄마를 떠올리고 있다. 오빠인 '나'에게 엄마가 자신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 자세히 묻는 것에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⑤ (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빠인 '나'를 오히려 타이르는 것에서 나이에 비해 성숙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 7 (사)에서 아빠를 찾아가기로 했음을 알 수 있으나, 아빠와 통화한 것은 아니다.
- 8 절정 부분에서 '나'를 타박하면서도 아이스크림을 내밀자 웃는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 짐작할 때, 할머니가 ㉠에서 한 말은 '나'를 정말 아빠에게 보내려는 뜻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고 걱정한 마음이 거칠게 표현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9 (바)에서 '나'는 처음 타는 KTX와 처음 가 보는 서울에 설레며 아빠를 만나러 간다. 그러나 (아)에서는 아빠가 사는 좁고 낡은 골목과 집을 보고 어깨 힘이 빠진다. 이를 통해 '나'의 심리가 기대에서 실망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 10 (자), (차)의 내용으로 보아 아빠는 자신이 지내는 초라한 공간을 '나'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일 뿐, '나'의 방문을 못마땅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11 뒷부분을 보면 아빠가 곤란해한 이유는 살림을 대충해서가 아니라, 초라한 생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이다. ㉠에서 '나'는 이러한 아빠의 속마음을 짐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제한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 12 ㉡는 엄마가 많이 아픈 상황에서도 아빠에게 살림하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쳤다는 뜻이지, 엄마가 직접 살림을 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 13 아빠는 서울에서 돈을 벌어 농사지을 땅과 트랙터를 다시 사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고향에 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나'와 함께 돌아가지 않으려는 것이다.
- 14 (파)에서 '나'는 늘 바쁘다, 미안하다 하는 아빠를 원망했는데 그 와중에 아빠는 혼자 서울에서 고생하며 지냈음을 깨닫고 미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5 (파)에서 아빠는 자신의 두 아이가 희망이며, 희망이 있으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 16 무단으로 집을 나갔던 '나'에게 아버지와 같이 살라고 말은 하셨지만, '나'가 아이스크림을 건네자 활짝 웃는 모습으로 볼 때, 할머니가 '나'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17 '나'가 선생님께 내일부터 교실에서 라면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자 한숨 쉬던 선생님의 입꼬리가 올라갔다고 했으므로, 둘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18 (거)에서 '나'가 떠올린 아빠의 모습과, '희망이 있으면 힘이 나는 법'과 같은 속마음에서 주제 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작품** **한눈에 보기** p.045

① 주인공 ② 역순행적 ③ 못함 ④ 서울 ⑤ 응원

**차곡차곡** **실력 체크** p.046~p.047

01 ② 02 ③ 03 ④ 04 **예시 답안** 이 소설은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로 등장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한다. 서술자 '나'는 주인공으로서 자신이 직접 겪은 사건과 자신의 생각, 느낌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05 ⑤ 06 ⑤ 07 **예시 답안** 아빠와 아빠의 쪽방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며, 꺾이지 않는 아빠의 당당함을 닮고 싶기 때문이다.

- 0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의 심리가 행동으로만 나타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나)와 (다)는 영천 집, (라)는 고모네 집, (마)는 동대구역, (가)는 교실을 배경으로 한다. 이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면 영천 집 → 고모네집 → 동대구역 → 교실이다. ③에서 '나'는 "할머니한테 말해 봤자 손톱도 안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며 아빠에게 가기로 결심하므로, 할머니에게 이를 말하고 떠난 것이 아니다.
- 03 '나'는 연서에게 예전에 "하늘을 보면 엄마 얼굴이 보인다."라고 말할 적은 있지만, 이는 연서를 위로하거나 엄마의 죽음을 이해시키기 위한 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가 동생에게 엄마의 죽음을 숨겨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04

채점 요소	배점	총점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씀.	1점	3점
서술자 '나'가 작품 속에 위치함을 씀.	1점	
서술자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5 이 글은 '나'의 제한된 시선에서 사건을 서술하므로, 처음에는 아빠의 상황과 속마음을 충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 방식은 아빠의 처지를 끝까지 알 수 없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가 아빠를 원망하던 상태에서 출발하여, 아빠의 힘겨운 삶과 마음을 차츰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아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지고, ‘나’의 내적 성장이 더욱 인상적으로 드러난다.

**06** 제시된 글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며, 아빠와 연우의 내면 심리를 모두 드러내고 있다(3인칭 전지적 시점). 따라서 1인칭 시점 서술에 비해 아빠의 책임감과 고뇌가 더 부각되지만, 가족에게서 느끼는 희망이라는 주제 의식은 여전히 드러난다.

**07** (마)에서 ‘나’는 아빠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기차에서 생라면을 먹으면서 ‘아빠와 아빠의 쪽방을 잊지 않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먹을 것’이며, ‘꺾이지 않는 아빠의 당당함’을 닮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마)에서 ‘나’가 생라면을 먹으면서 떠올린 두 가지 이유를 모두 씀	3점	3점
(마)에서 ‘나’가 떠올린 이유 중 한 가지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3 반어, 역설, 풍자

● **핵심 체크** p.049

1 반어 2 역설 3 X 04 O

**차근차근 개념 체크** p.050~p.051

01 ① 반대 ② 모순 ③ 웃음 02 ④ 03 (1) 반 (2) 역 04 ②  
05 ④ 06 ④ 07 ⑤ 08 ④ 09 (1) O (2) O (3) X (4) O

**02** 반어, 역설, 풍자 등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④가 적절하지 않다.

**03** (1) 과제 제출 기한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늦게 낸 것을 오히려 ‘일찍 냈다’고 말하며 비꼬고 있으므로 말의 겉뜻과 속뜻이 반대되는 반어에 해당한다.

(2) ‘바쁠수록’과 ‘돌아가다’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역설에 해당한다.

**04** 가계 문이 닫힌 상황에서 자신의 운이 나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오히려 반대로 말한 반어적 표현이다. 따라서 이 표현의 이면적 의미는 ‘운이 좋지 않다’에 가깝다.

**05** 보통 아픔이나 상처의 흔적을 떠올리게 하는 말인 ‘흉터’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아름답다’는 함께 쓰기 어색한 말이지만,

이를 나란히 놓아 상처의 흔적도 삶의 과정으로서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역설에 해당한다.

**06** 풍자 표현은 대상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야 하는데, (나)는 비판보다는 사랑과 책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가)는 실제로는 ‘잊지 못했다’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반대로 말하고 있으므로 반어가 사용되었다. (나)는 ‘독’과 ‘사랑’, ‘독하다’와 ‘아름답다’처럼 함께 쓰기 어색한 말을 나란히 놓아 자식에 대한 사랑과 책임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역설에 해당한다.

**07** 이 글은 빛을 갓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양반’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양반 계층의 무능함과 허위를 비판하고 있다. 이 글에서 ‘양반’을 선한 인물로 묘사하거나 독자의 연민을 유도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8** 이 시의 화자는 ‘달리기’를 ‘조깅’, ‘찬물’을 ‘냉수’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의미는 같지만 굳이 외래어나 한자어를 선택해 사용하는 모습을 반복해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우리말 대신 외래어나 한자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④가 적절하다.

**09** (1) ㉠은 반어가 쓰여, 겉으로는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깊이 슬퍼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은 길거리에서 전사회를 하는 사람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길가에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의 이기심을 비판한 것이다.

#### (1) 관찰은 척

● **내용 확인** p.052

1 X 2 O 3 O

● **작품 마무리** p.052

반어적, 반대, 약한

**차근차근 실력 체크** p.053

01 ③ 02 ② 03 ④ 04 ④ 05 ④ 06 ②

**07 예시 답안** 1연에는 반어가 쓰였다. 반어는 화자의 실제 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독자가 겉으로 드러난 말 이면에 숨은 화자의 속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01** 시각·청각·촉각 등을 활용한 감각적 이미지는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이 시는 ‘관찰아’라는 일상적인 표현을 반복하며(①) 화자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시상이 전개

되면서 마지막 연에서 속마음이 직접 제시된다(㉒). 또한 제목 '괜찮은 척'은 화자가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듯 행동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㉔).

- 02 화자는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힘들다고 한 것은 아니다. 3연의 '거짓말이 튀어나온다'는 화자 자신이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 03 이 시는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속마음을 차분하고 솔직하게 드러낼 뿐, 웃음을 유발하는 익살이나 해학적 분위기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 04 이 시의 화자는 힘든 상황임에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속마음과 상황을 알고 있는 친구라면 그 마음을 이해하는 조언을 할 것이다. ㉔는 화자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 속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말이다.
- 05 '척'의 의미로 볼 때, 화자가 '괜찮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진심을 감추고 애써 꾸며서 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 06 ㉑과 ㉒은 화자가 겉으로 드러낸 말과 태도를 보여 주고, ㉓과 ㉔은 화자의 속마음을 드러낸다.
- 07 1, 2연에서 화자는 힘든 상황에서도 애써 '괜찮다'고 말한다. 3연에서는 그러한 화자의 말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4연에서는 사실은 자신은 괜찮지 않으며 아프고 힘들다는 화자의 속마음이 드러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반어임을 밝힘.	2점	3점
반어의 표현적 효과를 알맞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2) 별

● **내용 확인** p.054

1 ○ 2 ○ 3 X

● **작품 마무리** p.054

역설적, 모순, 어둠, 어둠, 걱정거리, 극복

**차곡차곡 실력 체크** p.055

- 01 ① 02 ④ 03 지금 어둠인 사람들 04 ③ 05 ④ 06 ②  
 07 **예시 답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희망과 꿈을 발견하며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 01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표현법은 의인법으로, 이 시에 의인법은 쓰이지 않았다.
- 02 밝음과 어둠이라는 상반된 시각적 이미지를 대조하여 의미를 형상화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㉔는 적절하지 않다.
- 03 <보기>의 '잠 못 든 이'는 고통받고 있거나 상처를 입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는 이 시에서 '지금 어둠인 사람들(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그 속에서 '별'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상징적 의미가 유사하다.
- 04 이 시의 '별'은 '꿈'과 '희망'을 상징한다. ㉓의 '별' 역시 어두운 새벽에 길을 잃지 않게 하는 희망과 밝음을 의미하므로 상징적 기능이 가장 유사하다.

### Clinic 오답 강의

① 시 전문에서는 화자의 죽은 자녀로 해석 가능하지만, 제시된 부분만으로 보면 어둠 속에서 잠깐 빛나는 징후 정도로 해석 가능함. ② 소유하는 순간 가치를 잃는 대상 ④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 주는 존재 ⑤ 화자와 관계를 맺는 소중한 존재

- 05 ㉔는 편안한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한편, 미처 꿈과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며 꿈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는 충고가 가장 적절하다.
- 06 ②는 문장 성분의 위치를 바꾸어 의미를 강조한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반면 ①, ③, ④, ⑤는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표현을 나란히 사용하여 의미를 드러낸 역설법이 쓰였다.
- 07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 별들을 낳을 수 있다'(1연 7, 8행)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꿈과 희망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는 현재의 삶이 고달프더라도 그러한 어둠 속에서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힘든 사람만이 꿈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드러냄.	2점	3점
<조건 2>를 반영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3) 파수꾼

**핵심 포인트** p.058~p.060

- 01 팻말, 순응, 반어적, 편지      02 촌장, 내일  
 03 굴복, 순응, 회유              04 저항, 풍자, 다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057~p.060

- 1 ② 2 ④ 3 딸기 4 ⑤ 5 ④ 6 ② 7 ④ 8 ⑤ 9 이리 떼가 몰려온다. 10 ⑤ 11 바람 소리(바람 부는 소리) 12 ④

- 1 '편지'는 파수꾼 '다'가 망루에 올라갔다가,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만 떠다니는 평화로운 모습을 발견한 사실을 촌장에게 알리는 내용일 것이다.
- 2 ㉠은 촌장이 파수꾼 '다'의 편지를 받고 황야로 찾아오며 한 말로, 겉으로는 '고맙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가 진실을 드러내려 한 것에 대한 불쾌함과 경계심을 드러낸 방어적 표현이다.
- 3 '딸기'는 촌장만이 그 위치를 알고 있는 달콤한 과실로, 권력자가 독점하는 실리이자 '다'를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촌장은 과거의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끔찍한 상황을 과장하여 제시함으로써 파수꾼 '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
- 5 (다), (라)에서 나타나는 핵심 갈등은 이리 떼가 없다는 진실을 밝힐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촌장과 파수꾼 '다'의 대립이다. 촌장은 진실 은폐를, '다'는 진실 공개를 주장하며 갈등이 심화된다.
- 6 '흰 구름'은 은폐된 진실, 평화를 상징하며, 나머지는 모두 촌장이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만든 인위적 장치이다.
- 7 파수꾼 '나'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권력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가 파수꾼 '다'가 병이 났다고 걱정하는 장면은 있으나, 이는 '다'가 몹시 아프다고 여기는 수준의 걱정일 뿐, ④와 같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 8 ㉠은 촌장이 객석에 앉은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하여 말을 거는 장면이다. 이를 통해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고, 작품 속 상황을 자신의 현실과 연결해 성찰하게 만든다. 그러나 관객이 실제로 무대에 올라와 배우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장면은 제시되지 않는다.
- 9 파수꾼 '다'는 처음에는 이리 떼가 없다는 진실을 밝히려 했으나, 촌장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 결국 굴복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리 떼가 몰려온다"라고 외치게 된다.
- 10 (바)에서는 촌장이 진실을 은폐하고 공포를 조성하여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또한 진실을 알린 인물을 격리하고 처벌하려는 태도를 통해 부당한 권력의 억압성도 드러난다. 그러나 ⑤는 이 작품의 중심 비판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11 '바람 소리'는 촌장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해 거짓말을 하게 된 파수꾼 '다'의 좌절감과 절망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음향 효과이다.
- 12 파수꾼 '다'는 처음에는 감춰진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를 보이지만, 촌장의 회유와 협박 끝에 결국 거짓을 말하게 된다. 이는 정의를 추구하였으나 끝내 권력에 굴복하여 신념을 지키지

못한 지식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작품 한눈에 보기** p.061

- ① 설득 ② 이리 떼 ③ 양철 북 ④ 파수꾼 '나' ⑤ 국민 ⑥ 비판적 ⑦ 파수꾼 '다'

**차극차극 실력 체크** p.062~p.063

- 01 ③ 02 ⑤ 03 ② 04 ② 05 예시 답안 촌장은 거짓으로 공동체를 통제하는 권력자를, 파수꾼 '다'는 그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지식인을 상징한다. 06 ⑤ 07 ⑤ 08 ⑤  
09 예시 답안 파수꾼 '다'를 마을에서 고립시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01 이 글은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며, 카메라 촬영을 위한 특수 용어는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나리오에 사용된다.
- 02 촌장은 이리 떼로부터 마을을 지키려고 단결했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리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리 떼가 실제로 존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이리 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은 없다.
- 03 촌장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이해심 많은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숨기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인물이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마음이 다른 상태를 뜻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과 의미가 가장 잘 통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 ②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탄생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 ④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왕안석의 글에서 유래한다. 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듣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 04 ㉠은 파수꾼 '다'에 대한 촌장의 불쾌함을 반대로 표현한 방어적 표현이다. 이를 통해 촌장의 위선적이고 교활한 면모가 강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촌장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05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촌장이 거짓으로 공동체를 통제하는 권력자임을 씀.	1점	2점
	파수꾼 '다'가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지식인임을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6 이 작품에서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거짓을 의심하며 망루로 몰려오지만, 결국 촌장의 말에 설득되어 다시 돌아간다. 즉, 이들은 권력의 실체를 깨닫고 맞서는 존재가 아니라 권력에 쉽게 휘둘리는 집단이다. 따라서 ⑤는 작품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07 (다)에서 촌장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운반인이 무대에 등장하고 이를 처벌하는 장면이 나타나지는 것은 아니다.

08 이 글은 우의적 기법을 활용하여 1970년대 억압적 권력을 간접적으로 풍자하고 있으며, 독자가 상징적 의미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게 한다. 그러나 풍자 대상인 촌장(권력)은 교활하고 억압적인 인물로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독자가 풍자 대상에 대해 연민을 느끼도록 한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09	채점 요소	배점	총점
	파수꾼 '다'를 고립/격리/추방했다는 내용을 씀.	1점	3점
	촌장의 권력 유지 또는 거짓 체제 유지 목적을 씀.	1점	
	<조건>의 문장 형식을 충족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4 문학과 사회

### ● 핵심 체크

p.065

1 ○ 2 조선 3 핵가족 중심 4 ○

### 차근차근 개념 체크

p.066~p.067

01 ① 문화 ② 신분제 ③ 도시화 ④ 관계 ⑤ 의도 02 ⑤ 03 ②  
04 ③ 05 비둘기 06 ② 07 ⑤ 08 ④ 09 ⑤

02 사회·문화적 상황은 작품의 배경이 되어 인물의 갈등과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갈등이 개인의 문제에서만 비롯되고 사회·문화적 상황은 사건 전개와 큰 관련이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운율 형성 방식이 특정 시대의 갈래적 특징이나 표현 관습과 연결될 수 있기는 하나, 운율 형성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주로 작품의 형식적·내적 요소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

04 이 글의 양반은 양반이라는 신분을 지녔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관청에서 환곡을 꾸어 먹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05 <보기>는 1970~198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던 사회·문화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시에서 '비둘기'는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존재로, 산업화 과정에서 파괴된 자연과 소외된 존재를 상징한다.

06 <보기>의 정치적 상황과 작가의 삶을 고려하면, ㉠은 겉으로는 희게 보이지만 본래 검은 존재, 곧 세조의 왕위 찬탈에 가담한 간신을 상징한다. 또한 화자가 일편단심을 바치는 대상인 ㉡은 단종을 가리킨다.

07 <보기>의 소년은 조선 사람이지만 조선말을 할 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가 조선어 교육을 억제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났다.

08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1960년대 군부 독재와 남북 분단의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쇠붙이는 가라.'는 분단 극복에 대한 바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화자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를 세우기를 소망한다고 보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09 ⑤는 '조선인', '일본어' 등의 표현에서 일제 강점기의 현실이 드러난다.

### Clinic 오답 강의

①은 '삼십만 도민', '빨갱이'에서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함을 추측할 수 있다.

#### 제주 4·3 사건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제주 4·3은 군사정권하에서 오랜 기간 금기시되다가 1978년 소설가 현기영의 <순이삼촌>으로 그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점차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9년 12월 국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2003년 4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실을 인정하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제주 4·3 사건

②의 '육군 본부', '군대에 나간 사람 죽었다는 편지', ③의 '철모를 쓴 국군 아저씨' 등은 전쟁 상황을 보여 주지만, 그것만으로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

④의 '북쪽을 향해서 피란을 가는', '인민군'은 6·25 전쟁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 (1) 하여가 / 단심가

### ● 내용 확인

p.068

1 ○ 2 ○ 3 ○

### ● 작품 마무리

p.068

충성심, 회유, 고려, 정몽주, 이몽

01 ⑤ 02 ③ 03 ④ 04 ④ 05 독야청청(하리라) 06 ①  
 07 예시 답안 이방원은 고려에 대한 충절을 접고 자신과 함께 새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자고 정몽주를 회유하고자(가)를 창작하였다.

- 01 (가), (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형시인 평시조로, 대체로 45자 내외의 글자 수를 지닌다. 따라서 글자 수에 제한이 없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 02 <보기>에 나타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가)의 화자는 고려를 다시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고려에 대한 충성을 접고 새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함께하자고 설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03 (나)의 화자는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드러내며 ‘입 향한 붉은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한자로 표현하면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인 ‘일편단심’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침을 이르는 말. ②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③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겁어진다든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간사한 피로 남을 속여 회통함을 이르는 말. 중국 송나라의 저공(狙公)의 고사로,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내더니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좋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04 (나)의 화자는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드러내며 신하의 도리를 지키고자 한다. 따라서 충절을 지키기보다 실리를 얻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④는 (나)의 입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 05 (나)의 종장에서 화자는 임금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심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홀로 푸르고 푸르다는 뜻을 지닌 ‘독야청청’에 해당한다. ‘독야청청’은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06 (가)와 (나)는 4음보의 음보율을 보여 주는 시조이다. ①은 3음보율이 나타나고, ②~⑤는 4음보율이 나타난다.
- 07 (가)의 작가인 이방원은 약화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건설하려는 아버지 이성계와 뜻을 같이하고 있었으며,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에게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그를 회유하고자 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정몽주, 이방원을 모두 언급함.	1점	3점
고려를 언급함.	1점	
회유, 설득, 권유 등의 표현으로 창작 의도를 알맞게 드러냄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 가난한 사람 노래

● 내용 확인

1 X 2 O 3 O

● 작품 마무리

운율, 도시, 젊은이, 통행, 가난

차곡차곡 실력 체크

01 ⑤ 02 ③ 03 ② 04 ① 05 ③ 06 ③  
 07 예시 답안 가난한 도시 노동자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산업화 시대의 젊은이인 화자에 대해 공감과 연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01 9~11행에서 화자의 고향 집 분위기를 드러내며 ‘새빨간 감’과 같은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여기에서 젊은 이들이 떠난 농촌의 현실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 02 화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방법대원의 호각 소리’ 등이 언급되지만, 화자가 방법대원에게 붙잡혔다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03 노력 없이 성공한 사람이 반성하기를 바라는 내용은 작품에서 찾기 어렵다.

**Clinic** 오답 강의

⑤ 이 시는 가난한 도시 노동자인 젊은이가 가난으로 인해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과 같은 보편적인 감정마저 포기해야 하는 처지를 설의법, 도치법,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04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슬픔과 아픔을 추측할 수는 있지만, 화자가 헤어진 연인에게 미련과 원망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05 ㉠의 ‘메밀묵 사려 소리’는 1970~1980년대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당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에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익숙한 소리라고 보기 어렵다.
- 06 ㉡의 ‘이 모든 것들’은 앞에서 제시된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을 가리킨다. 화자는 가난하다고 해서 이런 감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 때문에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들마저 마음껏 지니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는 가난한 이는 인간다운 감정마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7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시인의 태도를 연민, 공감, 연대 등으로 적절하게 밝힘.	2점	3점
	사회·문화적 상황으로 산업화 시대, 1970~1980년대를 알맞게 밝힘.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3) 홍소

핵심 포인트

p.073~p.078

- 01 우편배달부, 먹을 것                      02 걱정스러움, 육군 본부
- 03 편지 한 장, 책임감, 편지                04 갈등, 국장
- 05 걱정, 전쟁, 면직(파면)

####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073~p.078

- 1 ②    2 ③    3 ⑤    4 ④    5 ④    6 ⑤    7 육군 본부    8 ③  
 9 ⑤    10 ①    11 ②    12 ⑤    13 ②    14 ④    15 ⑤    16 판  
 수가 전사 소식을 전해야 하는 괴로운 마음을 잊기 위해 물에 버린 전사  
 통지서이다.    17 ④    18 ③    19 ⑤

- 1 판수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편배달부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말은 찾을 수 없다.
- 2 판수가 자녀를 중학교까지 보낸 일을 크게 뿌듯해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중학교 진학은 흔하거나 부담 없는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중학교가 무상 교육이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3 ‘조마조마함’은 닥쳐올 일에 대해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뜻하므로, (나)의 평화롭고 한가로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 4 판수가 ‘노파’에게 통명스럽게 말한 것은, 편지 내용을 짐작하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다.
- 5 이 글은 인물이 사용하는 사투리와 비속어를 통해 현장감과 사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전쟁의 필요성이 아니라, 전쟁의 비극을 강조한다. 앞쪽의 (나)에서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농촌 풍경을 묘사하였는데, 이는 이후 전사 통지서로 비극에 휩싸이는 수암리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어 전쟁의 비극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 6 판수는 비극적인 편지 내용을 모른 척하고 얼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에서 저도 모르게 통명스럽게 말한 것이지, 상대를 원망한 것은 아니다.
- 7 ㉔는 발신인인 ‘육군 본부’를 뜻한다.
- 8 판수는 편지 문치를 확인한 뒤 “아직도 아홉 장이나 된다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어서 “이것뿐 아니지.”, “이건 이면 기고, 다른 면에는 더 많지.”라고 하였으므로, 판수가 앞으로 전해야 할 전사 통지서가 아홉 통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 9 판수는 평소와 달리 일을 마치기 전부터 주막에 들어와 술을 찾고 있다. 이는 전사 통지서를 전달하며 겪은 충격과 괴로움 때문에 몇 잔 들이켜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0 ㉔의 ‘별 지랄 같은 편지’는 전쟁터에서 청년들이 죽어 가는 비극적 현실에 대한 판수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이러한 편지를 직업이라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전해야 하는 괴로운 마음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11 값진 낚시대에 밀짚모자를 쓴 국장은 전사 통지서를 전한 괴로움으로 술까지 마신 판수와 대비를 이룬다. 이를 통해 판수의 괴로운 심리가 더욱 두드러진다.

12 판수가 편지 한 장을 물에 빠뜨린 것은 실수이지, 말은 일보다 자기 감정을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에서 판수는 성실하고 책임감과 직업의식이 투철한 인물로 묘사되는데, 이는 절정 부분에서 판수가 전사 통지서 배달을 거부하는 행동이 더욱 극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설정이다.

13 판수는 ‘육군 본부’라는 글자를 보고 그 편지가 전사 통지서임을 다시 인식하고 있다. 이어서 그가 육군 본부에서 온 편지만 골라 물에 띄워 보내는 것으로 보아, 판수는 편지를 말릴 방법보다 전사 통지서를 없애 버릴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않다.

14 판수가 노인과 시선을 마주치고 쑥스러워하고는 노인이 자신을 봤을까 걱정을 하는 것을 보면, 편지를 버린 것을 들리고 싶어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5 앞부분에서 판수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 있어 걱정하는 판수의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아들이 이미 죽었다거나 판수가 그 사실을 직감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16 편지에 ‘육군 본부라는 녀 자’가 적힌 데에서 이 편지가 (차)에서 판수가 괴로운 마음을 잊기 위해 버린 전사 통지서임을 알 수 있다.

17 박 씨와 서 군은 답답해하며 안타까운 반응을 보일 뿐, 판수가 편지를 버린 이유를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18 ㉔은 자신이 배달해야 할 편지를 끝까지 전달하지 않고 버린 일을 말한다.

#### Clinic 오답 강의

①, ⑤ 판수가 아침에 술을 마신 일이나 사람들에게 통명스럽게 대한 일은 사건의 배경이 될 수는 있지만, 면직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다.

19 판수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직장을 잃은 것이 절망스럽고 앞으로 생계를 유지할 일이 막막할 것이다. 하지만 동료들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 작품 한눈에 보기

p.079

- ① 전사 통지서 ② 눈물 ③ 생계 ④ 전쟁터 ⑤ 면직(파면)



정했음을 보여 준다.

- 9 ㉠은 김 반장의 눈빛과 경호네 내외의 안색을 통해, 그들이 싱싱 청과물의 등장으로 마음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0 ‘일절’은 ‘모든 종류의 부식’이라는 뜻의 ‘부식 일체’를 잘못 쓴 말이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은 ‘일체’이다.
- 11 (자)~(타)는 소설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형제 슈퍼와 김포 슈퍼가 싱싱 청과물을 본격적으로 압박하면서 인물 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다.
- 12 형제 슈퍼의 행동을 이해할 만하다고 보는 생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 13 (카)에서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는 값을 깎으려는 손님도 돌려 보내지 않고, 오히려 가격을 더 낮추어 팔고 있다.
- 14 이 작품은 인물들을 선악 구도로 단순하게 나누어 교훈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먹고살기 위해 갈등하고 타협하는 소시민들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 15 (거)에서 지물포 여자의 “다들 먹고살아 보려고 아옹다옹하는 것이니……”라는 말을 통해 인물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근본 원인이 먹고살기 힘든 현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16 시내 엄마는 싱싱 청과물 사내에게 동정심을 보이고, 김 반장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김 반장을 감싸는 지물포 여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감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17 (너)는 이월의 따뜻한 날씨와 활기찬 원미동 거리의 모습을 통해 계절의 변화, 시간의 경과, 분위기의 전환을 보여 준다. 따라서 갈등이 심화함을 꽃샘추위로 상징한다는 ㉠은 적절하지 않다.
- 18 ㉠은 원미동 사람들의 고단한 현실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그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인물들의 현실적 고민이 이미 해소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한 ㉠은 적절하지 않다.
- 19 시내 엄마는 앞쪽의 (거)에서는 싱싱 청과물의 폐업을 안타까워하며 동정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새로 전파상이 들어온다는 말이 나오자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로 받아들여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다.

**치극치극 실력 체크**

p.090~p.091

01 ㉠ 02 ㉡ 03 예시 답안 ㉠은 ‘고래들’인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싸움으로 ‘새우들’인 원미동 사람들이 이익을 얻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 말에서는 갈등을 방관한 채 그 틈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원미동 사람들의 이해타산적이고 이기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04 ㉡ 05 ㉠ 06 ㉢ 07 예시 답안 이 작품 속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들 먹고살아 보려고 아옹다옹하는” 현실, 즉 생계를 위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01 경호네 내외는 김 반장이 쌀과 연탄을 들여놓자, 형제 슈퍼보다 가격을 낮추어 대응하였다. 따라서 김 반장의 휘방에 대응하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했다는 ㉠은 적절하지 않다.
- 02 (가)에서는 충청도 산골 마을에서 상경한 경호네 내외의 모습이, (다)에서는 연탄 사용과 당시의 물가 수준이 드러난다. 또한 작품 전반에는 동네의 작은 가게들을 중심으로 한 생활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대형 마트 중심의 소비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는 적절하지 않다.

03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고래들’, ‘새우들’이 가리키는 바를 알맞게 밝힘.	2점	4점
	‘이해타산적, 이기적’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4 이 작품은 형제 슈퍼, 김포 슈퍼, 싱싱 청과물 사이의 갈등을 통해 도시 변두리 소시민들의 광활한 삶과 속물적·이기적인 면모를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즉,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인간상을 보여 주기보다, 생계를 둘러싼 경쟁 속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인간 군상을 그려 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 05 (가)에서 서술자는 싱싱 청과물 사내가 ‘동네 형편은 전혀 모르는 듯하였다’고 말하며, 부식까지 판 일을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동네 상황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보는 ㉠은 적절하지 않다.

- 06 ㉠에서 시내 엄마는 싱싱 청과물 주인을 동정하고, 두 슈퍼의 행동을 “너무 잔인해” 라고 비판한다. 반면 ㉡에서는 같은 업종의 가게가 들어서면 결국 두 집 다 망할 수 있다며 동종 업종의 경쟁이 불러올 현실적 위험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시내 엄마의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은 원미동 사람들을 선악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먹고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연민과 이해타산이 뒤섞인 소시민의 삶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 07 형제 슈퍼와 김포 슈퍼의 갈등, 이 두 슈퍼와 싱싱 청과물 사이의 갈등 등은 개인의 악의로 발생했다기보다, “다들 먹고살아 보려고 아옹다옹하는 것이니……”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생계를 위해 서로 다투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먹고살기 위해 아옹다옹하는 현실’과 같은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함	2점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작품 한눈에 보기** p.089

① 일자리 ② 도시 ③ 1980 ④ 동맹 ⑤ 싱싱 청과물

# 2 문법

## 01 피동 표현

● **핵심 체크** p.095

1 ○ 2 ○ 3 -아-, -히-, -리-, -기- 4 객관적

### 차근차근 개념 체크 p.096~p.097

01 ① 능동 ② -리- ③ 피동 ④ 막히다 ⑤ 밀리다 ⑥ 이루어지다  
 02 (1) 피동 표현 (2) 능동 표현 03 (1) X (2) X (3) X (4) ○ 04 보  
 내다, 늘리다, 만들다 / 닫히다, 밀리다, 쫓기다, 열리다 05 (1) ○  
 (2) X (3) ○ 06 (1) 능동문 (2) 누가 했는지 (3) 피동문 07 ㉠, ㉡  
 08 ㉠ 부사어 ㉡ 주어 09 ㉡ 10 (1) ㉡ (2) ㉠ 11 (1) 들판이 눈  
 에 덮였다. / 들판이 눈에 의해 덮였다. (2)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였다. /  
 나뭇가지가 바람에 의해 꺾였다. (3) 소가 농장에서 (그에 의해) 사육된  
 다. / 농장에서 소가 사육된다. 12 (1) 드러나 있지 않다 (2) 행위를 한  
 주체가 (3) 밝히지 않고 13 (1) ○ (2) X (3) ○

- 03 (1)의 '풀리다', (3)의 '닫히다'는 피동사이다. (2)의 '흔나다'는 어휘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이다. 이러한 어휘적 피동의 예로는 '당하다, 받다' 등이 있다. 교과서에서는 피동 접사나 '-아/어지다'와 같은 문법 형식으로 만든 피동 표현만을 다룬다.
- 07 피동 접사는 능동사의 어근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사로, ㉠의 '잡혔다'는 어근 '잡-'에 피동 접사 '-히-'가, ㉡의 '쫓겼다'는 어근 '쫓-'에 피동 접사 '-기-'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의 '지워졌어'는 '-어지다'가 붙은 표현으로, 피동 표현은 맞으나 피동 접사를 사용한 경우는 아니다. ㉣은 능동문이다.
- 08 제시된 문장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우는 아이가 엄마에게 안겼다.'이다.
- 09 '관리자에 의해'는 부사어로, 생략하더라도 '문이 열렸다'만으로 핵심 의미가 전달 가능하다. 피동문에서 행위 주체(~에 의해)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 11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고쳐 쓰되, 조사는 달라도 의미가 같으면 정답으로 인정한다.
- 12 ㉠, ㉡은 피동문으로, 행위를 한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결과나 상황을 강조해 전달한다. ㉢은 능동문으로, 행위를 한 주체가 주어인 '우리'로 드러난다.

### 차근차근 실력 체크 p.098~p.099

01 ⑤ 02 ② 03 ② 04 예시 답안 ㉡이 피동 표현이다. 피동 표현은 주어가 남의 행동을 당하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05 ⑤ 06 ② 07 ⑤ 08 ① 09 예시 답안 '보여진다'는 피동 표현이 겹쳐 사용되어 어색하다. '보이다'만 사용해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보인다."와 같이 고친다.  
 10 ③ 11 ③ 12 예시 답안 손님은 능동 표현인 '컵을 덜 닦았네요.' 대신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컵이 덜 닦인 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듣는 이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 01 능동문과 피동문은 문장의 길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02 피동문은 보통 타동사를 서술어로 한 문장에서 성립한다. ①의 '없다'와 ⑤의 '있다'는 상태나 존재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④의 '마음에 들다'는 피동문으로 바꾸기 어려운 표현이다. 또한 ③은 자동사 '뛰다'를 사용하여 목적어가 없으므로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 반면 ②는 타동사 '물다'를 사용하였으므로 '아기의 팔이 모기에게 물렸다'와 같이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 03 '올리다'는 '오르게 하다'의 의미를 지닌 사동사로, 피동 표현이 아니다.

#### Clinic 오답 강의

①, ④는 각각 피동 접사 '-히-', '-이-'가 결합된 피동 표현, ③은 동사 어간 '쓰-'에 '-어지다'가 결합된 피동 표현, ⑤는 명사 '기대'에 '-되다'가 붙은 형태의 피동 표현이다.

- 04 ㉠과 ㉡은 같은 상황을 나타내되, 주어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각각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표현한 문장이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이 피동 표현임을 밝힘.	1점	3점
피동문의 의미상 특징을 적절히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5 ①의 '쫓기다', ②의 '복구되다', ③의 '닫히다', ④의 '썩히다'는 행동을 당하는 대상이 주어로 나타나는 피동사로, 피동 표현에 속한다. 반면 ⑤의 '붙이다'는 행동의 주체가 주어로 나타나는 능동사다.
- 06 ㉠의 '구입하다'와 ㉡의 '빌리다'는 능동 표현이다. ㉢의 '진열되다', ㉣의 '놓이다', ㉤의 '대출되다'는 피동 표현이다. 이 대화에서 피동 표현이 많이 쓰인 것은, 새 책을 누가 진열하고 놓았는지보다 새 책이 입수되어 정리된 상황 자체를 중심으로 전달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07 '화분을 깬어'는 주어가 직접 행위를 한 능동 표현이다. ① 반면 '깨졌구나', '진정됐어'는 피동 표현으로 ②, 행위의 주체를 앞세우기보다 상태의 변화나 결과에 초점을 두는 효과가 있다 ③, ④. 따라서 '화분이 깨졌구나'는 화분을 깬 주체를 분명히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라, 화분이 깨진 상황 자체에 주목한

표현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08** ①은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을 주어로 한 피동 표현으로, 시행의 주체인 '정부'보다 사업 자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대신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을 강조하려는 기자의 의도에 가장 적절하다.

**Clinic** **오답 강의**  
 ②, ③, ⑤는 모두 능동 표현이며, ④는 피동 표현이지만 '정부에 의해'를 사용하여 시행 주체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사업 자체를 강조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 09** '보여진다'는 '보이다'에 다시 '-어지다'가 붙어 피동 표현이 겹친 말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보인다." 처럼 고쳐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 10** '기억하다'가 화자의 의식적인 행위이므로, 문맥상 '말씀을 기억하면서'가 더 적절하다.

**Clinic** **오답 강의**  
 ④는 떠올리는 행위의 주체인 '제가' 생략되어 있다. 편지글은 1인칭 주어 가 자주 생략된다.

- 11** 제시된 문장은 판단의 주체를 직접 드러내지 않아, 보도 내용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처럼 느껴지게 한다. 따라서 능동 표현에 비해 내용이 객관적으로 전달된다.

12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능동 표현인 '컵을 덜 닦았네요.' 대신 피동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씀.	1점	3점
	듣는 이의 부담을 덜어 주거나 표현을 부드럽게 한다는 효과를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2 인용 표현

● **핵심 체크** p.101

1 인용 2 직접, 간접 03 ○ 04 X

###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02~p.103

- 01** ① 직접 ② 간접 ③ (이)라고 ④ 고 / (1) ㉠ (2) ㉡ **02** (1) ㉢ (2) ㉣ **03** (1) 라고 (2) 고 **04** (1) 간 (2) 직 (3) 직 **05** ㉠, ㉡, ㉢ **06** (1) X (2) X (3) ○ **07** ㉠ 자기 ㉡ 자기 **08** (1) ○ (2) X **09** ㉠, ㉡ **10** (1) -라 (2) -다 (3) -자 (4) -냐 **11** 엄마가 "오늘 웬만하면 외출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 잊었어?"라고 말씀하셨다. **12** (1) ○ (2) X (3) ○

- 06** (1) '-다고'를 사용해 '피곤하다고'로 바꾼다. '라고'는 직접 인용 표현에 쓰이는 인용 조사이다.

(2) '난(나는)'은 말한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말이므로 나

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3) 원 발화의 '지금'을 생략하였으나, 인용 조사와 인칭 대명사를 <보기>의 조건에 맞게 바꾸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는 간접 인용 표현이다.

- 07** 간접 인용 표현을 쓸 때에는 인용 조사 '고'를 사용한다. 또한 인칭 대명사를 상황에 맞게 바꾸어야 하므로, '나는'은 '자기는'으로, '나도'는 '자기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08** 간접 인용에서는 원 발화자에게 가까운 곳이 인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닐 수 있어서, '이곳', '여기'와 같은 표현이 '그곳', '거기'와 같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 09** 인용 조사 '라고'가 '고'로 바뀌었다. 또한 인용문의 시간 표현 '내일'이 '오늘'로 바뀌었다. 그러나 인칭 대명사는 바뀌지 않았다.

- 10** (3) 청유의 뜻을 지닌 의문문이므로 '-자고'를, (4) 정보를 확인하는 의문문이므로 '-냐고'를 사용하여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꾼다.

- 11**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에는 작은따옴표를 쓴다.

### 차근차근 실력 체크 p.104~p.105

**01** ④ **02** ① **03** ② **04** ⑤ **05** ③ **06** 예시 답안 연우가 동아리 발표회에서 노래를 부르자고 제안하자, 하람이는 무슨 노래를 부를지 정했냐고 물었다. **07** ① **08** ㉠은 긴급한 상황이 실감 나게 드러난다. 반면 ㉡은 상황의 긴급함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기는 하지만, 간결한 인상을 준다. **09** ⑤ **10** 예시 답안 xx연구소는, 발표했다. / ① 전문가나 연구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②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③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준다.

- 01**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상황에 따라 인칭이나 시제 표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원 발화의 시제와 인칭 표현을 그대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Clinic** **오답 강의**  
 ⑤ 간접 인용은 원 발화를 그대로 옮기는 직접 인용과 달리, 자기의 말로 바꾸어 옮기는 것이므로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02** ①~⑤는 모두 인용 표현을 사용한 문장이며, 이 가운데 ①만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였다.

- 03**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조사 '(이)라고'를 사용하여 말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반면, 간접 인용은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 '고'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바꾸어 옮긴다.

- 04** ㉠은 조사 '고'를 사용하여 남호의 말을 바꾸어 옮긴 간접 인



- 01 ⑤ 02 ⑤ 03 ③ 04 ㉠: ㄱ + ㅌ + ㅂ + ㅌ + ㅇ, ㉡: ㄴ + ㅌ + ㅂ + ㅌ + ㅇ / 첫소리(초성) ‘ㄱ’과 ‘ㄴ’이 다르기 때문이다.  
 05 ③ 06 ④ 07 ③ 08 ④ 09 ② 10 혀의 최고점의 위치는 입 안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움직인다. ‘ㄱ’은 전설 모음, ‘ㄴ’은 후설 모음이다. 11 ③ 12 ① 13 ⑤ 14 ① 15 예시 답안  
 우리말 단모음 중 ‘ㅣ, ㅍ, ㅡ, ㅓ’는 고모음, ‘ㅘ, ㅙ, ㅚ, ㅜ’는 중모음, ‘ㅝ, ㅞ’는 저모음이다. 16 ② 17 ⑤ 18 ② 19 ⑤ 20 ④  
 21 예시 답안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는 파열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ㄱ’은 혀의 뒷부분과 어린입천장(연구개), ‘ㄷ’은 혀끝과 윗잇몸(치조) ‘ㅂ’은 두 입술 사이(양순)에서 소리 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01 Clinic 오답 강의

①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② ‘풀[풀]’은 ‘ㅍ’, ‘ㄱ’, ‘ㄴ’ 세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다. ③ 음운이 아니라 음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음운은 소리 단위로, 모든 음운이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 02 ㉠은 소리 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인 자음, ㉡은 소리 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인 모음이다.  
 03 ③은 소리의 길이(장음·단음) 차이로 뜻이 구별되고, ①, ②, ④, ⑤는 자음이나 모음의 차이로 뜻이 구별된다.  
 04 ㉠과 ㉡은 첫소리(초성)의 자음 ‘ㄱ’과 ‘ㄴ’이 달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05 ‘아’는 ‘ㅏ’로 음운 1개, ‘알’은 ‘ㅏ’, ‘ㄹ’으로 음운 2개이므로 옳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아’는 초성 자음이 없고, ‘바’는 초성 자음 ‘ㅂ’이 있으므로 틀렸다. ② ‘아’는 모음으로 이루어져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지만, ‘바’는 자음 ‘ㅂ’ 때문에 입술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는다. ④ ‘바’와 ‘방’은 소리의 길이가 아니라 종성 ‘ㅇ’의 유무로 의미가 달라진다. ⑤ ‘알’의 초성 ‘ㅇ’은 소리값이 없지만, ‘방’의 종성 ‘ㅇ’은 소리값이 있으므로 틀렸다.

- 06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이다.  
 07 ㉠과 ㉡은 혀의 최고점이 입 안의 앞쪽에 위치하는 전설 모음이다. ㉢과 ㉣은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위치하는 후설 모음이다.  
 08 ‘ㄱ, ㄴ’은 단모음이지만 이중 모음처럼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ㅘ’는 전설 모음이므로 알맞지 않다. ② ‘ㅣ’는 고모음으로 입을 조금 벌리고 혀의 높이를 높게 하여 발음한다. ③ ‘ㅏ, ㅓ’는 원순 모음이므로 입술을 둥글게 하여 발음한다. ④ ‘ㅘ’는 중모음으로, 혀의 높이가 중간 정도에서 발음된다. 따라서 고모음 ‘ㅣ’를 발음할 때보다 혀의 높이를 낮추고 입을 더 벌려 발음한다.

09 Clinic 오답 강의

① 모두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이다. 단, ‘ㄴ’은 이중 모음처럼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③ ‘ㄴ’은 입술을 둥글게 하여 발음하는 원순 모음이다. ④ ‘ㄴ’은 전설 모음이 맞고, ‘ㅓ’는 후설 모음이다. ⑤ ‘ㅓ’는 평순 모음이자 후설 모음이다.

- 10 혀의 최고점의 위치는 입 안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움직인다. ‘ㄱ’은 전설 모음, ‘ㄴ’은 후설 모음이다.  
 11 ‘ㄱ’은 혀의 뒷부분을 어린입천장에 대어 소리 내는 어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이다.  
 12 ㉠은 윗잇몸이다. 윗잇몸에서 나는 소리는 잇몸소리인 ‘ㄷ, ㅌ, ㅊ, ㅍ, ㅛ, ㅜ’이다. ㉡은 어린입천장으로, 어린입천장 소리는 ‘ㄱ, ㄴ, ㄷ, ㅇ’이다.  
 13 ‘ㅈ, ㅊ, ㅊ’은 모두 선입천장소리(경구개음)로, 소리 나는 위치가 동일하다.

Clinic 오답 강의

④ ‘ㄷ, ㅌ’은 잇몸소리(치조음)이고, ‘ㅈ’은 선입천장소리(경구개음)이다.

- 14 ‘ㄱ, ㅋ, ㆁ’은 모두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인 파열음으로, 소리 내는 방법이 같다.

Clinic 오답 강의

② ‘ㅓ’는 입술에서 공기의 흐름을 막지만, ‘ㅂ, ㅃ, ㅍ’처럼 터뜨리지 않고 코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비음이므로 파열음이 아니다. ③ ‘ㅎ’은 공기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소리 내는 마찰음이다. ④ ‘ㄴ, ㅇ’은 공기를 코로 내보내며 나는 비음으로, 마찰음이 아니다. ⑤ ‘ㅅ, ㅆ’은 파찰음이 아니라 마찰음이다. 파찰음은 ‘ㅈ, ㅊ, ㅊ’이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을 씀.	1점	4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을 바르게 제시함.	각 1점	

- 15 ‘밀어줄래’는 [미러줄래]로 발음되며 총 9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다.  
 16 ‘ㄱ’은 연구개음이자 파열음이다. ② ‘ㅓ’는 양순음이나, 파열음이 아니라 비음이다. ③ ‘ㄷ’은 연구개음이 아니라 치조음이다. ④ ‘ㅇ’은 목청소리(후음)가 아니라 연구개음이고, 파열음이 아니라 비음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ㄴ’은 된소리, ‘ㅣ’는 전설 고모음이다. ③ ‘ㅞ’는 된소리, ‘ㅓ’는 후설 중모음이다. ④, ⑤ ‘ㅓ’, ‘ㅞ’는 거센소리이다.

- 17 ‘사람’의 ‘ㅅ’은 초성에서 [ㅅ]으로 발음되며,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나는 마찰음이다. 반면 ‘뭇’의 ‘ㅅ’은 종성에서 [ㄷ]으로 발음된다. 이때 종성의 [ㄷ]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 공기의 흐름이 막히며 끝나는 소리이다. 따라서 ⑤가 적절하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의 ‘ㅅ’은 [ㅅ], ㉡의 ‘ㅅ’은 [ㄷ]으로 발음되므로 동일한 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② ㉠의 ‘ㅅ’은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는 파열음이 아니라 마찰음이다. ③ ㉠의 ‘ㅅ’은 파찰음이 아니라 마찰음이다. ④ ㉡의 ‘ㅅ’은 [ㄷ]으로 발음되며, 선입천장소리가 아니라 잇몸소리에 해당한다.

20 ㉠은 유음, ㉡은 거센소리이다. [코끼리]의 ‘ㄱ’은 거센소리, ‘ㄴ’은 유음으로 ④가 정답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책가방]의 ‘ㄷ’은 거센소리이다. 유음은 없다. ② [안개골]에는 거센소리도 유음도 없다. ③ [피아노]의 ‘ㅍ’은 거센소리, 유음은 없다. ⑤ [호랑이]에는 유음은 있으나 거센소리가 없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ㄱ’, ‘ㄷ’, ‘ㅂ’이 모두 파열음임을 밝힌.	1점	4점
‘ㄱ’, ‘ㄷ’, ‘ㅂ’의 조음 위치를 순서대로 여린입천장, 윗잇몸, 두 입술 사이로 바르게 밝힌.	각 1점	

**04 한글의 창제 정신과 원리**

**● 핵심 체크** p.118

1 ㄱ, ㄴ, ㄹ, ㅁ, ㅂ, ㅅ, ㅇ    02 ㅋ / ㆁ    03 ○    04 5, 9, 3

**자근자근 개념 체크** p.120~p.121

01 ① 상형 ② 가획자 ③ 모음자 ④ 합성    02 ㉠: 자주정신, ㉡: 애민 정신, ㉢: 실용 정신    03 (1) 스물여덟 (2) 백성 (3) 중국 (4) 가엾게  
 04 ㄱ, ㄷ, ㅌ    05 (1) ○ (2) X (3) X (4) ○    06 ㄱ, ㄴ, ㄷ    07 기본자: ㄱ, ㄴ, ㄹ, ㅁ, ㅂ, ㅅ, ㅇ / 가획자: ㅋ, ㆁ, ㆅ, ㅃ, ㅆ, ㅈ, ㆆ, ㆏, ㆐ / 이체자: ㄷ, ㅌ, ㄹ  
 08 (1) ㉠ (2) ㉡ (3) ㉢ (4) ㉣ (5) ㉤    09 소리 나는 위치, 소리의 세기    10 (1) ㄱ, ㄴ, ㄹ, ㅁ, ㅂ, ㅅ, ㅇ (2) ㅃ, ㅆ, ㅈ (3) ㅋ, ㆁ, ㆅ  
 11 (1) X (2) ○    12 (1) ㅃ, ㅆ, ㅈ, ㆅ (2) ㅃ, ㅆ (3) ㅃ, ㅆ (4) ㅃ, ㅆ  
 13 (1) 과학성 (2) 표음성 (3) 모아쓰기    14 (1) ○ (2) X (3) ○

04 ㄱ(반치음), ㅇ(엿이음), 여린히읃(㆏), ㆅ(아래아)는 오늘날 쓰이지 않는다.

06 ㄱ.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일반 백성도 우리말을 적고 읽기 쉬워져, 효행이나 농사 방법 등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책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백성에게 필요한 지식과 유교적 가치를 널리 전하려는 한글 창제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

09 ‘ㄱ, ㅋ / ㆁ, ㆅ / ㅃ, ㅆ’은 각각 같은 발음 위치에서 나는 자음들이다. 이처럼 한글은 모양과 소리의 관계가 비교적 규칙적이어서 글자를 익히기 쉽다.

10 (1)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2) ‘ㄱ, ㅃ, ㅆ’ 등은 같은 글자를 나란히 써서 만든 병서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3) ‘ㄱ’에 획을 더하여 ‘ㅋ’을 만들고, ‘ㅅ’에 획을 더하여 ‘ㅆ’을, 다시 획을 더하여 ‘ㆅ’을 만든 것은 가획의 원리를 보여 준다.

11 ㉠은 초출자, ㉡은 재출자이다. 초출자는 ‘ㄷ’, ‘ㄴ’에 ‘ㄹ’을 한번 합하여 만들었다. 재출자는 초출자에 ‘ㄹ’을 한 번 더 합하여 만들었다.

13 (2) 한글은 글자 자체가 뜻을 지니는 문자가 아니라 말소리를 적는 표음 문자이다. 참고로,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에 뜻이 담긴 표의 문자이다.

14 (1) 한글은 말소리와 문자의 대응이 비교적 규칙적인 표음 문자이고, 자음과 모음을 체계적으로 조합해 음절을 만들 수 있어 입력, 저장, 검색, 음성 인식과 같은 디지털 정보 처리에 유리하다.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22~p.123

01 ④    02 ⑤    03 ①    04 ②    05 ②    06 ‘ㄱ, ㄴ, ㄹ, ㅁ, ㅂ, ㅅ, ㅇ’ → 상형의 원리 / ‘ㅋ, ㆁ, ㆅ, ㅃ, ㅆ, ㅈ, ㆆ, ㆏, ㆐’ → 가획의 원리    07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의 세기가 커짐을 나타내었다.    08 ④  
 09 ②    10 ④    11 ⑤    12 예시 답안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 ‘ㄱ, ㆁ, ㅣ’가 만들어졌다. 또 합성의 원리에 따라 ‘ㄴ, ㄷ’에 ‘ㄹ’을 합하여 ‘ㄹ, ㄴ, ㄷ, ㄹ’를 만들고, 여기에 다시 ‘ㄹ’을 더 합하여 ‘ㄹ, ㄴ, ㄹ, ㄹ’를 만들었다.

01 한글 창제 이전에는 우리말의 소리 체계가 중국의 한자와 맞지 않아 우리말의 소리를 정확히 적기 어려웠다.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한자가 공통 문자처럼 쓰이고 있었으므로, 공통 문자가 없어서 한글을 창제한 것은 아니다.

02 ① 말로는 방대한 지식을 멀리, 후대까지 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② 관리들만 글을 알고 백성은 글을 모른다면, 백성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 ③ 한자는 이미 쓰이고 있었고, 이두나 향찰처럼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적는 방법도 있었지만, 백성이 쉽게 익혀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④ 한글은 한자를 쉽게 배우게 하려는 보조 수단이 아니라, 백성이 쉽게 배워 자신의 뜻을 글로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문자이다.

03 훈민정음은 우리말을 적기 위해 만든 독창적 글자이자, 동시에 책 이름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② 훈민정음은 중국 한자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가 아니다. ③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④ 세종 대왕이 만든 것은 우리말이 아니라 우리 문자이다. ⑤ 훈민정음은 1443년 창제되고 1446년에 반포되었다.

04 ㉠은 중국과 다른 우리말을 적을 우리 글자를 만들고자 한 자주정신, ㉡은 글을 몰라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 애민 정신, ㉢은 쉽게 배우고 쓰기 편한 문자로 실생활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실용 정신이 드러난다.

05 한글 창제에는 유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백성을 교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널리 전하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세종의 뜻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양반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06 ‘ㄱ, ㄴ, ㄹ, ㅅ, ㅇ’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이고, ‘ㅋ, ㆁ, ㅌ, ㅍ, ㅊ, ㅅ, ㅆ, ㅎ, ㅎ’은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07 훈민정음에서는 기본 자음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의 세기가 더 큰 자음자를 만들었다. ‘ㄱ-ㅋ’, ‘ㄷ-ㅌ’, ‘ㅂ-ㅍ’, ‘ㅈ-ㅊ’은 이러한 가획의 원리를 보여 준다.

08 **Clinic** **오답 강의**

① ‘ㅎ(여린 히읃), ㅎ(옛이음), ㅏ(반치음), ㅑ(아래아)’의 총 4개는 현대에는 사라져 쓰이지 않는다. ② 가운데줄은 같은 글자를 두 번 써서 만든 병서자가 아니라, 가획자(ㅂ, ㅍ, ㅊ, ㅆ, ㅎ, ㅎ)와 이체자(ㅇ, ㄹ, ㅏ)이다. ③ 맨 아래줄의 모음들 중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뜬 모음 기본자는 ‘ㅏ, ㅑ, ㅣ’이다. ⑤ 맨 윗줄에는 기본자 ‘ㄱ, ㄴ, ㄹ, ㅅ, ㅇ’과 가획자 ‘ㅋ, ㆁ, ㅌ’이 함께 있다. 따라서 모두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09 ㉠은 모아쓰기, ㉡은 풀어쓰기로 적은 글이다.

10 한글은 글자 자체가 뜻을 나타내는 문자가 아니라, 말소리를 적는 표음 문자이다.

11 영어 알파벳 ‘n, d, t’는 소리 나는 위치는 서로 비슷하지만, 조음 위치와 글자의 모양 사이에 ‘ㄴ, ㄷ, ㅌ’과 같이 체계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상형의 원리와 합성의 원리를 바르게 서술함.	2점	3점
상형의 원리와 합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모음자를 <보기>에서 골라 적절히 활용함.	1점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3 읽기

#### 01 점검·조정하며 읽기

연재의 점검·조정하며 읽기

**핵심 포인트** p.127~p.129

01 수준, 관심	02 한정적
03 희귀하다, 희소성, 문맥	04 요약, 성찰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27~p.129

1 실용적인 경제 상식이나 경제의 기본 개념 2 ② 3 ① 4 ②  
 5 ② 6 ③ 7 ① 8 ⑤ 9 ㉠: 희소성, ㉡: 한정판, ㉢: 수요, ㉣: 가격 10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연재는 “경제의 역사보다는 실용적인 경제 상식이나 경제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싶어.”라고 하였다.
- ①, ③, ④, ⑤는 (가)에서 읽기 전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②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어려운 단어가 많고’, ‘내가 읽기에 너무 어려워서’라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 제시된 지문에서 연재가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한지 판단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참고로 글쓴이의 생각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활동은 대개 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근거를 종합해 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 ‘희소하다’는 그 수량보다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라고 하였는데, ‘② 잘못 인쇄된 우표’는 수요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수량 자체가 적게 존재하는 대상으로, 이는 ‘희소하다’기보다는 ‘희귀하다’에 가깝다.
- ㉣에서 연재는 전에 배웠던 자원의 ‘희소성’에 대해 떠올리며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있다.
- 희소성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적으면 희소성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①은 글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 읽기 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읽는 것은 읽기 중에 할 활동이다.

**내용 한눈에 보기** p.130

① 관심 ② 목적 ③ 수준 ④ 사전 ⑤ 문맥 ⑥ 요약

01 ⑤ 02 ① 03 예시 답안 ㉠은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고, ㉡은 맥락을 살펴 다시 읽어 보며 의미를 파악한다. 04 ④ 05 ② 06 ③ 07 ③ 08 예시 답안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예측한 글의 내용과 실제 글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01 연재가 '천 원으로 시작하는 10대들의 경제학'을 읽을 책으로 선정한 것은 전문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준이 자신에게 맞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고른 것이다. 읽을 글을 선정할 때는 관심사(①), 읽기 목적(②), 수준(③), 흥미(④) 등을 고려한다.

02 이 학생은 제목을 보고 예측했던 내용이 글을 읽은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읽는 중에 처음 세운 예측이 맞는지 점검하며 읽는 활동에 해당하므로 ①이 적절하다.

03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봄을 밝힘.	1점	3점
	㉡의 의미를 문맥을 살펴 파악함을 밝힘.	1점	
	<조건>을 충족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글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은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다시 읽거나 생각하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

05 콘서트 티켓이 비싼 까닭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며, 수요와 공급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06 한정된 시간과 돈을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은 (가)~(라)에 나타나지 않으며, 글에서 해결된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07 글을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을 찾는 활동을 하고 있다.

08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함을 서술함.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2 설명하는 글 읽기

야구 선수들은 왜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것일까?

### 핵심 포인트

p. 134~p. 136

- 01 검정, 눈부심                      02 정의, 인과, 인과  
03 분석, 예시, 대조, 인과, 인과      04 눈부심

1 ① 2 빛의, 나뉩니다(또는 합니다) 3 ③ 4 ⑤ 5 ④ 6 ⑤ 7 포도는 여러 색의 빛 가운데 보라색 빛을 반사하고 나머지 색의 빛은 흡수하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보인다. 8 ② 9 ① 10 검정 테이프는 햇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눈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줄어 눈부심이 감소한다.

1 이 글은 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까닭을 과학적 개념을 통해 설명하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명 방법 중 '구분'에 해당한다. (다)에서는 빛의 반사를 '어떻게 반사하느냐'를 기준으로 난반사와 정반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3 ㉠에서는 울퉁불퉁한 표면과 매끄러운 표면에서 반사된 빛의 차이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각각의 표면에서 눈부심이 생기거나 생기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인과'의 방법도 함께 사용되었다.

4 (라)에서는 야구 선수에게 눈부심이 생기는 까닭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과'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설명 방법이 쓰인 문장은 ⑤이다.

### Clinic 오답 강의

① 정의 ② 비교 ③ 분석 ④ 구분

5 (바)에서는 태양 빛이 여러 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체에 닿은 빛이 반사되거나 흡수되는 과정에 따라 우리가 물체의 색을 인지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심 내용은 물체의 색이 결정되는 원리이다.

6 (바)에서는 물체의 색이 보이는 원리를 설명 한 뒤, 굴·장미·개나리의 예를 들어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8 흰색 물체는 모든 색의 빛을 반사하므로 눈부심을 유발한다.

### Clinic 오답 강의

① 흰색 물체는 모든 색깔의 빛을 반사한다. ③ 눈부심을 줄려면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해야 한다. ④ 빛을 반사하면 눈이 부셔서 경력이 떨어진다. ⑤ 검은색 물체는 대부분의 빛을 흡수하고 거의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검은색으로 보인다.

9 (사)에서 검은색 물체는 모든 색의 빛을 흡수하고, 흰색 물체는 모든 색의 빛을 반사한다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10 검은색 물체는 대부분의 색의 빛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검정 테이프가 햇빛을 흡수하여 눈부심을 줄여 주는 것이다.

### 내용 한눈에 보기

p.137

① 호기심 ② 색깔 ③ 정의 ④ 인과 ⑤ 분석 ⑥ 예시 ⑦ 대조

01 ④ 02 ② 03 예시 답안 ⑥쪽이 더 눈부시다. ㉔는 표면이 울퉁불퉁하여 난반사가 일어나므로 눈이 덜 부시지만, ㉔는 표면이 매끄러워 정반사가 일어나므로 눈이 부시다. 04 ⑤ 05 ② 06 ④

- 01 이 글은 야구 선수들이 사용하는 ‘검정 테이프’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눈부심의 원인과 빛의 반사 원리라는 과학적 사실을 제시한다. 검정 테이프 외에 눈부심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 02 ㉔은 ‘빛의 반사’를 반사 방향에 따라 난반사와 정반사로 나누고 있으므로, 설명 방법은 구분이다. 이때 대상을 종류별로 나누었다고 해서 모두 분류인 것은 아니다. 하나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구분이고, 여러 대상을 공통된 성질에 따라 묶어 설명하면 분류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분석 ② 구분 ③ 비교와 대조 ④ 예시 ⑤ 인과

03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눈이 부신 쪽이 ㉔임을 밝힘.	1점	3점
	눈이 부신 이유를 바르게 밝힘.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검정 테이프가 눈부심을 줄여 주는 이유는 검정색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색깔 대비’를 통해 공을 더 선명하게 본다는 설명은 색의 인지나 명암 대비 효과에 관한 것으로, 이 글에서 설명한 눈부심 방지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 05 예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다. (다)에서는 빛의 반사와 흡수가 색을 결정한다는 원리를 주황색 굴, 빨간 장미, 노란 개나리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06 검은색 물체는 모든 색의 빛을 흡수하고, 흰색 물체는 모든 색의 빛을 반사한다는 차이를 설명한 부분에는 ‘대조’가, 각 물체가 검은색과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에는 ‘인과’가 사용되었다. ④는 간질일 때 웃음이 나는 이유와 웃음이 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두 경우의 차이점을 대조하였으므로 ‘대조’와 ‘인과’가 모두 사용되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인과 ② 인과, 예시 ③ 머리카락을 구성 요소로 분석한 뒤, 정의적 설명을 덧붙였다. ⑤ 대상을 갈래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한 다음(구분), 갈래별로 하위 갈래를 제시했다.

**03 주장하는 글 읽기**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한다

**핵심 포인트**

- |                  |                   |
|------------------|-------------------|
| 01 격차, 흥미        | 02 디지털 격차, 디지털 약자 |
| 03 교육, 교육        | 04 경제적, 정보        |
| 05 일반적, 사회적, 설득력 | 06 개별적, 평등, 줄이기   |

1 ④ 2 ① 3 디지털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는다. 4 ② 5 ⑤ 6 귀납 7 ③ 8 ② 9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 1 (가)에서 디지털 격차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난다.
- 2 ㉔은 디지털 격차의 뜻을 설명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쓰였고, ㉔은 디지털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 3 글쓴이는 ‘디지털 약자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의 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4 이 글에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다)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함. ④ 온라인 수업 참여의 어려움, 온라인 물품 구매의 제약, 구직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 디지털 약자가 겪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 ⑤ 디지털 약자가 겪는 불편함, 교육 격차, 경제적 격차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시하여 그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냄.

- 5 ㉔과 ㉔은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유’에 해당한다. 반면 ㉔, ㉔, ㉔은 설문 조사 결과나 구체적 사례 등으로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에 해당한다.
- 6 디지털 격차로 디지털 약자들이 일상에서 불편을 겪으며, 교육 격차가 커지며, 경제적 격차가 발생한다는 구체적인 개별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적인 결론(디지털 격차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킴)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
- 7 (바)에서는 디지털 격차가 초래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 논증은 사용되지 않았다.
- 8 (사)에서는 일반적인 원리(㉔)와 개별 사실(㉔)을 전제로 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 논증이 사용되었다. 연역 논증은 전제가 모두 참일 경우 결론도 반드시 참이 되므로, ㉔, ㉔이 참이라면 ㉔ 역시 참이다.
- 9 글쓴이는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 교육 격차, 경제적 격차 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한 뒤,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용 한눈에 보기**

① 약자 ② 경제적 ③ 설문 조사 ④ 갈등 ⑤ 귀납 ⑥ 연역

- 01 ⑤ 02 ② 03 ② 04 ④ 05 ① 06 ①  
 07 [예시 답안] ㉔ 2020년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㉔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01 이 글에서는 디지털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행동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 02 이 글에서는 디지털 격차로 인해 교육 격차가 커진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할 뿐, 디지털 격차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교육의 부족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 03 가. 본문에서는 디지털 격차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이 나타난다.  
 라. 결론에서는 모두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디지털 약자도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역 논증이 나타난다.

**Clinic** 오답 강의

㉔. 유추는 두 대상의 비슷한 점을 근거로, 다른 점도 비슷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이다.  
 예 지구와 화성은 둘 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자전하며, 계절 변화가 있다.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 따라서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 04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주장), ‘물론 이런 문제들은~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예상 반론), ‘그러나~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반박)
- 05 a는 논증 요소 중 ‘이유’에 해당하고, b는 ‘근거’에 해당한다. ㉔과 ㉕은 이유인 ㉔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㉖은 이유인 ㉕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 06 글쓴이는 디지털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예상 반론을 제시한 뒤,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는 것이 글쓴이의 궁극적 주장이다.

**Clinic** 오답 강의

㉓ 디지털 기술 발전 속에서 생기는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지, 디지털 기술 발전을 멈추자는 것은 아니다. ㉔ 경각심을 갖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07	채점 요소	배점	총점
	㉔을 알맞게 씀.	2점	3점
	㉕을 알맞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복합양식 평가하며 읽기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친구

핵심 포인트

- 01 문화, 예측 02 반려동물, 이해  
 03 비교, 사회적 04 등록, 생생하게, 개인적  
 05 규칙

차근차근 내용 체크

- 1 ④ 2 ③ 3 ⑤ 4 동물을 쉽게 사고파는 문화 5 ② 6 ⑤  
 7 ④ 8 ⑤ 9 ⑤

- 1 이 글은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는 현실을 제시하고, 반려동물 유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 자체를 비판하는 내용은 아니다.
- 2 (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3 그래프 우측에 단위가 퍼센트이며, 중복 응답이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제시된 반려 동물 종류별 수치를 모두 합하면 116.5%이다. 따라서, 두 종류 이상을 기르는 응답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 반려동물을 물건 사듯이 손쉽게 구입하는 현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반려동물 자동판매기 그림을 넣었다.
- 5 ㉔ 반려동물이 아니라, 입양 희망자의 자격과 여건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6 (바)는 글과 표를 함께 사용한 복합양식으로, 글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들고, 글 하단의 표에는 국가별 반려동물 정책을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독자는 각 나라의 정책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고 서로 견주어 이해할 수 있으므로 ㉔가 가장 적절하다.

**Clinic** 오답 강의

㉓ 표는 글의 내용을 반복한 것이 아니다. ㉔ 표는 장단점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국가별 정책의 핵심만을 정리한 것이다.

- 7 ㉔는 유기 문제의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사)에는 반려동물 돌봄 방법이나 등록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8 반려동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는 입양 후가 아니라 입양 전 충분히 조사하고 고민해야 한다.
- 9 이 글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보호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 신중한 입양, 제도 및 규칙 숙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㉔가 알맞다.

① 기호 ② 보호자 ③ 그래프 ④ 시각적 ⑤ 타당성 ⑥ 출처 ⑦ 적절성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2~p.153

**01** ④ **02** ⑤ **03** ⑤ **04** **예시 답안**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므로 자료의 출처를 믿을 만하다. 또한 조사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나 항목으로 제시하고 출처도 정확히 밝혀,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다. **05** ① **06** ⑤ **07** **예시 답안** ㉠ 반려동물 입양 절차를 강화 ㉢ 반려동물 등록 ㉣ 반려동물이 홀로 있는 시간 최소화

- 01** 글쓴이는 유기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며, 반려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의식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02** 표와 그림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독자의 판단이나 비판적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복합양식으로 작성된 글은 글, 표, 그림의 관계를 종합 및 판단하며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03** 자판기에서 동물을 구입하는 그림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 비판 의도를 담은 상징적 표현이다. 따라서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 비판 의식을 인상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04** 일반적으로 내용이 구체적일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는 조사 대상, 항목, 수치 등이 분명하게 제시될수록 독자가 그 내용을 막연한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조사에 근거한 정보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내용이 타당한지 확인하거나 다른 자료와 비교하며 검토하기도 쉬워진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근거를 두 가지 밝힘.	각 1점	3점
내용의 신뢰성 여부를 적절하게 밝힘.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5**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유기했을 때 보호자의 인적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효과와 이점만 제시되어 있을 뿐, 한계(예: 비용 부담, 절차의 번거로움 등)는 제시되지 않았다.
- 06** 복합양식 자료가 쓰인 글을 평가할 때에는 복합양식 자료의 양보다 타당성, 신뢰성, 표현 방식의 적절성 등이 더 중요하다.

**07**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씀.	1점	3점
㉢, ㉣에 들어갈 반려인의 의무를 바르게 밝힘.	각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4 듣기·말하기/쓰기

## 01 설명하는 글 쓰기

서아와 함께 설명하는 글 쓰기

**핵심 포인트** p.157~p.160

- 01** 눈물, 예상 독자 **02** 인공 눈물의 종류
- 03** 개요, 눈물의 뜻 **04** 평소 눈물이 나는, 참고 자료
- 05** 흥미 **06** 눈물주머니
- 07** 이해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57~p.160

- 1** ② **2** ② **3** ⑤ **4** ③ **5** ④ **6** ⑤ **7** ③ **8** ③
- 9** **예시 답** 독자가 눈물이 나는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10** ⑤
- 11** ② **12** **예시 답** 설명 대상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1** 서아의 글쓰기 계획을 통해 ‘눈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서아는 예상 독자인 반 친구들이 눈물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 3** ①~④는 모두 서아가 활용한 방법들이다. 그러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생각을 생성하거나 구체화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4** 마련한 내용에 대해 주제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에서 고려한 사항이다.
- 5** 개요의 ‘끝’ 부분을 보면, 눈물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글을 마무리 지으려 함을 짐작할 수 있다.
- 6** 서아는 평소 눈물이 나는 상황을 제시하여 친구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였다.
- 7** **1** 문단에서 이 글을 쓴 계기를 짐작할 수 있기는 하지만 ③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 8** 눈물은 안구를 적셔 눈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고, 노폐물이나 이물질을 씻어 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각막에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하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염증을 치료하기도 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② 눈물샘에서 만들어져 눈물점이라는 구멍으로 빠져나간 뒤 누낭(눈물 주머니)에 모였다가 코눈물관으로 배출된다. ④ 눈물의 양이 많으면 뺨으로 흘러내리기도 한다. ⑤ 눈물은 영양분 공급과 감염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 9** 서아가 추가한 눈물 기관의 구조를 그린 그림 자료를 통해 독자는 눈물이 나는 과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0 눈물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 그리고 일정한 층위 구조로 이루어진 눈물의 구조를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복수의(수가 여럿인) 대상을 기준을 세워 종류별로 나누는 '분류'는 사용되지 않았다.

11 5에서 눈물의 종류를 나누어 설명하고는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는지는 직접 밝히지 않았다. 독자는 각 눈물의 정의를 읽고 나서야 발생 원인이나 눈물이 생기는 상황을 기준으로 종류를 나누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2 서아는 '반사적 눈물'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례를 추가하였다.

**내용** **안눈에 보기** p.161

① 정보 ② 흐름 ③ 출처 ④ 분석 ⑤ 구조 ⑥ 정의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62~p.163

01 ④ 02 ④ 03 예시 답안 눈물의 종류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 뒤에, 각 눈물 종류의 개념을 정의한다. 이는 여러 종류의 눈물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이해하게 하고, 각 개념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 방법이기 때문이다. 04 ④ 05 ③ 06 ⑤ 07 예시 답안 '누낭'은 예상 독자인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눈물주머니'로 바꾸어 쓴다.

01 (가)는 계획하기, (나)는 내용 생성하기, (다)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는 것은 표현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02 (나)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로, 글의 내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는 서아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단계에서는 마련한 내용이 충분하고 적절한지 점검하고,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은 삭제하고, 부족한 자료를 더 찾아보는 방향으로 점검해야 한다.

03	채점 요소	배점	총점
	㉔에 알맞은 설명 방법 2가지를 씀.	1점	3점
	각 설명 방법이 ㉔ 항목을 설명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4 (라)는 눈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반사적 눈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④를 중심 내용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예상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고쳐 쓴 것이다.

06 ㉔에서는 슬플 때 흘리는 눈물과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의 맛에서 느낄 수 있는 공통점(비교)과 차이점(대조)을 설명하고 있다. 예시는 사용되지 않았다.

07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누낭'을 '눈물주머니'로 고쳐 쓸 것을 서술함.	2점	3점
	고쳐 쓴 이유를 포함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2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 쓰기

세훈이와 함께 기사문 쓰기

**핵심 포인트** p.165~p.169

01 옷놀이  
02 수학적 원리, 옷놀이 도구, 가치  
03 기사문, 요약, 방법, 도구의 의미, 당부, 사진  
04 모, 말, 옷, 국가 무형유산, 계승, 출처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65~p.169

1 ② 2 ④ 3 ⑤ 4 ④ 5 ④ 6 ③ 7 ② 8 ④ 9 ⑤  
10 ④ 11 ⑤ 12 ④ 13 ③ 14 ④ 15 ⑤

1 세훈이는 지역 청소년 온라인 신문에 '옷놀이의 방법과 가치'를 소개하는 기사문을 쓰려고 한다.

2 세훈이는 지역 청소년 온라인 신문을 매체로 정하고, 글의 주제와 유형에 맞게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상 독자인 지역 청소년들이 어떤 내용을 궁금해할지 조사할 계획은 하지 않았다.

3 ㉑은 문자와 그림으로 구성된 카드 뉴스로, 옷놀이 방법을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자료는 옷놀이의 가치와 관련이 없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4 자료 ㉒에서 옷놀이에서 도-개-걸-옷-모가 나올 확률을 말하기는 했으나,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Clinic 오답 강의**

①, ②는 ㉔에서, ③은 ㉒에서, ⑤는 ㉔에서 찾을 수 있다.

5 옷놀이 규칙이 아니라, 옷놀이 도구의 의미를 제시하면 효과적일 것이라 하였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6 ㉔은 국가유산청 공식 블로그에 제시된 자료로, 문자와 그림(사진)을 함께 활용한 복합양식 자료이다. 그러나 소리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자와 그림, 소리가 결합된 자료라고 한 ③은 알맞지 않다.

- 7 세훈이가 개요를 작성하면서 삭제한 내용은 없다.
- 8 복합양식 자료는 특정한 주제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글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 9 ㉔는 옷놀이에 필요한 도구를 제시하며 놀이의 기본 구성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옷놀이의 유래를 설명한 것이 아니며 예시의 방법 또한 쓰이지 않았다.
- 10 기사문은 ‘표제-부제-전문-본문’으로 구성한다.
- 11 ㉔에서는 옷가락의 모양에 따라 이동 칸 수가 달라진다는 점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동물의 크기나 속도와 관련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만 했을 뿐 ㉔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다.
- 12 ㉔에서는 옷놀이 방법을 설명하며 ‘도, 개, 걸, 옷, 모’뿐 아니라 ‘백도’가 나오는 경우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옷놀이가 다섯 가지 경우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한 ㉔는 알맞지 않다.
- 13 놀이 방법이 다양해진 것은 최근의 변화에 대한 설명일 뿐, 국가 무형유산 지정의 이유로 제시된 내용은 아니다.
- 14 [A]는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 부분으로, 글에서 활용한 정보가 믿을 만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15 기사문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이므로, 자신의 감상이나 느낌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것은 핵심 평가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내용** **안눈에 보기** p.170  
 ① 기사문 ② 복합양식 ③ 출처 ④ 기호

**확인** **체크** p.170  
 1 ㉔ 2 ㉔

- 1 글쓰기 과정은 필요에 따라 앞 단계로 되돌아가 조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글의 유형과 목적 정하기 → 자료 수집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 2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내용이 믿을 만하고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므로, 눈에 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71~p.172

01 ㉔ 02 ㉔ 03 예시 답안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면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04 ㉔ 05 ㉔ 06 예시 답안 글의 내용을 생성할 때에는 내용이 믿을 만하고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01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옷놀이의 방법과 가치로, 이 글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없다. 따라서 ㉔는 알맞지 않다.

02 글에서는 옷가락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고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고만 하였을 뿐, 수학적 원리를 잘 이해했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하지는 않았다.

03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함을 서술함.	2점	4점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4 (다)는 옷놀이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옷놀이에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05 ㉔에 해당하는 (마) 문단은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영상 제작 등 전통을 새롭게 계승·발전시키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노력하지 않아 낭패를 본 사례를 추가하겠다는 전략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6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내용이 믿을 만하고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수집해야 함을 서술함.	2점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3 점검하고 조정하는 발표하기**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73  
 1 청중 2 ○ 3 비언어적

두런두런, 달려 볼까요?

**핵심 포인트** p.174~p.179

01 계획, 관심	02 효과, 동아리
03 그래프, 관심	04 관심, 설명 방법, 인과
05 발표 순서	06 달리기
07 사진, 마라톤, 훈련	

- 1 ②    2 ⑤    3 ②    4 ④    5 ⑤    6 ⑤    7 ③    8 ③    9 ④
- 10 예시    11 ⑤    12 ③    13 ⑤    14 ①    15 ②    16 ④
- 17 ④    18 ④

- 1 계획하기 단계에서 발표 장소를 고려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2 달리기に関心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 3 지수와 친구들은 실제로 느낀 달리기의 효과를 동아리 부원들의 인터뷰 영상(㉠)으로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고자 하였으며, 동아리의 달리기 훈련 방법을 소개할 때에는 관련 신문 기사(㉡)를 활용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②가 적절하다.
- 4 사진 자료를 바꾸며 청중의 이해도를 고려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였으며(㉣), 발표 주제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의 책을 활용하고 있다.
- 5 지수와 친구들은 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달리기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구성하여 청중의 흥미를 높이고자 하였다.
- 6 설문 조사 결과에는 각 질문마다 선택지별 응답 인원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7 [A]는 설문 조사 결과를 원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복합양식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는 청중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돕고 특정 항목을 강조하여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 8 지수와 친구들은 발표 흐름과 내용의 명료성을 고려하여 순서를 조정하고 항목을 통합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9 ‘올해의 활동 계획’을 ‘동아리 2학기 활동 계획’에 포함하면 하면 ‘내용이 명료해지고, 발표 흐름도 자연스러워질’ 것이라고 하였다.
- 11 ②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관심 정도를 보여 주고 있으나, 이를 문제로 보고 비판하거나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12 “여러분은 달리기에 관심이 있나요?”와 같이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 13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 관심을 유도하였을 뿐, 특정 청중을 지목하여 대답하게 하지는 않았다.
- 14 꾸준히 달리를 한 뒤 나타난 자세 변화와 스트레스 감소라는 결과를 제시하며 달리기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인과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 15 지수는 청중을 둘러보며 질문한 뒤 큰 목소리로 답을 제시하

여 청중이 발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16 개인의 달리기 경험을 예로 들어 효과를 강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17 ⑦에서는 동아리 블로그를 안내하며 가입 문의를 남기도록 권유하고 있고, ⑧에서는 발표 내용을 정리하며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18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동아리의 방향성을 강조하고 발표를 인상 깊게 마무리하고 있다.

내용 한눈에 보기

- ① 달리기    ② 시각화    ③ 표    ④ 목소리    ⑤ 구분

차근차근 실력 체크

- 01 ②    02 ②    03 예시 답안 예시, 달리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하면 예상 청중이 달리기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대조, 달리를 하기 전과 후의 건강 상태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달리기의 효과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 인과, 달리를 한 뒤 나타나는 변화와 결과를 설명하면 예상 청중이 달리기의 효과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할 수 있다.    04 ②    05 ③    06 ④
- 07 예시 답안 동아리 ‘두런두런’에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 블로그를 통해 가입 문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01 설문 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재구성하면 달리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02 (다)에서는 이미 ‘도입-전개-정리’의 구성에 따라 발표 틀이 마련된 상태에서, 청중의 관심과 내용의 명료성을 고려하여 항목의 위치를 옮기거나 내용을 통합하는 등 세부 배열을 점검·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표를 ‘도입-전개-정리’로 나누어 조직할지를 새롭게 검토한 것은 아니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03	채점 요소	배점	총점
	①을 설명할 적절한 설명 방법을 제시함(예시/대조/인과 등)	2점	5점
	선택한 설명 방법이 내용 전달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4 (가)~(라)에서는 질문을 활용하거나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발표 전략은 나타나지만, 통계 자료를 제시한 부분은 없다.

05 ㉔에서는 마라톤 종목을 '거리'라는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분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분석의 방법이라고 한 ㉓은 적절하지 않다.

06 ㉔는 함께할 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말로, 동아리가 추구하는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발표자가 청중에게 동아리 참여(또는 가입)를 유도하려는 행동을 서술함.	2점	3점
'블로그를 통한 가입'과 같이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4 공감하고 존중하는 대화하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83

1 X 2 X

이 대화, 뭐가 문제일까요?

핵심 포인트 p.184~p.187

- |               |           |
|---------------|-----------|
| 01 공감, 감정     | 02 몸짓, 요약 |
| 03 의미, 정우, 아빠 | 06 다르다    |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84~p.187

- 1 ⑤ 2 ② 3 ⑤ 4 ⑤ 5 ③ 6 ② 7 ④ 8 ⑤ 9 ③  
 10 ㉔: 아빠가 용돈 낭비라고 말씀하셔서 ㉔: 정말 속상했어요 11 ②  
 12 ③

- 해나는 자신의 상황에 공감해 주기를 바랐으나, 정우가 조언만 하고 감정을 이해해 주지 않아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해나는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반응을 기대했으므로, ②가 가장 적절하다.
- 정우는 해나와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얻기 위해 고민 상담방에 질문을 올렸다.
- 공감을 원하는 대화 상대에게는 문제의 정확한 분석을 제공하기보다는 상대의 감정과 처지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공감하며 대화하면 상대가 자신의 감정이나 처지를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므로 상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6 아빠와 정우는 같은 소비를 두고도 '의미 있다'는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갈등의 원인은 의미 있는 소비에 대한 생각 차이에 있다.

7 정우는 질문에서 "어떻게 해야 갈등을 풀고 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여, 갈등 상황을 조정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조언하고자 한다.

8 답변에는 "이럴 때에는 피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 해요."라고 하여,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피하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9 ㉔은 상대의 생각을 고려하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10 '아빠가 용돈 낭비라고 말씀하셔서'는 갈등이 생긴 일을 객관적으로 전달한 부분이고, '정말 속상했어요'는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부분이다.

11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하려면 상대에게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는 자신의 입장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말로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식에 어긋난다.

12 정우는 함께 먹고 싶어 하고 유진이는 따로 먹고 싶어 하여 갈등이 생겼다. 이는 감자튀김의 양 부족 때문이 아니라 먹는 방식과 식사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 내용 한눈에 보기 p.188

- ① 공감 ② 격려 ③ 비난 ④ 욕구 ⑤ 객관

차근차근 실력 체크 p.189~p.190

- 01 ② 02 ② 03 ③ 04 예시 답안 해나는 발목을 삐어 아픈 상황에서 정우가 공감해 주지 않아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05 ⑤ 06 ⑤ 07 ④ 08 예시 답안 갈등이 생긴 일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 정우는 발목을 다친 해나에게 앞으로는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
- (나)에서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상대의 상황과 처지에 공감하며 말하는 것은 ②이다.
- 공감하며 대화하려면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분석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③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먼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상대에게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다.

04	채점 요소	배점	총점
	해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힘.	1점	3점
	해나가 느낀 감정을 구체적으로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5 아빠는 정우가 한정관 물건을 어렵게 구했고 꼭 갖고 싶은 것만 골라 샀다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용돈을 헤프게 쓰는 것’, ‘낭비’라고 표현했다. 이는 아빠와 정우의 갈등이 생긴 원인 중 하나이다.

06 정우는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7 (나)에서는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화 자체를 줄이겠다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08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나)에 제시된 갈등 조정 대화 방법을 찾아 적절히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tarting from the top right of the 'memo' text and extending across the page.

# me 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tarting from the top right of the title and extending down the page.